

나, 세상, 교회를 밝히는 **밝힘** 프로젝트
녀

기독교여성 지도력개발 : 기본과정

충성스런
여 집사
봉사하는
여 권사
일 잘하는
자매...
그러나...
그녀들이
선 곳은?



언제 | 2013.5.21(화) 개강 (10주)

매주 화요일 저녁 7:30~9:30

어디 | 향린교회 1층 유치부실

준비 | 교회개혁실천연대

사회선교센터 길목

1주	5.21	3쪽	오리엔테이션 평등감수성 워크숍	문양효숙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기자
2주	5.28	6쪽	대중문화 속에 나타난 여성	송화숙 이화여자대학교/가톨릭대학교 강사
3주	6.4	8쪽	여성의 눈으로 보는 성서1	이영미 한신대학교 교수
4주	6.11	14쪽	한국교회사에 나타난 여성들	양현혜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5주	6.18	28쪽	여성의 눈으로 보는 성서2	이영미 한신대학교 교수
6주	6.25	32쪽	여성과 사회1 한국사회 안에서의 여성	이숙진 성공회대학교 연구교수
7주	7.2	37쪽	대화과 회의의 기술1	김선혜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갈등해결센터 소장
8주	7.9		대화과 회의의 기술2	
9주	7.16	46쪽	여성과 사회2 한국교회 안에서의 여성	백소영 이화여자대학교 인문과학원 HK연구교수
10주	7.23		“나는 교회여성이다!” - 마무리 수다와 수료식	

1

평등감수성 워크숍

문양효숙 |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기자

0. warm up

(1) 이미지와 느낌

(2) 언어

1. 차별이야기

(1) 차별이란

‘취향의 차이’라는 게 있다.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과 차를 좋아하는 사람,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과 연극을 좋아하는 사람. ‘기질의 차이’라는 것도 있다. 100m를 잘 뛰는 사람과 마라톤을 잘 뛰는 사람, 성격이 급한 사람과 느긋한 사람. 여기에는 우열이 없다.

차별은 이런 다름을 서열화하고 위계화 하는 데에서 시작한다. 서열에서 낮은 위치를 차지하는 특성을 가진 집단은 열등한 존재로, 혹은 부인되어야 할 존재로 간주된다. 서열의 기준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대부분은 이미 권력관계에서 중심적인 위치에 있는 집단이 그들의 관점에서 기준을 만들게 되고 이렇게 만들어진 기준에 의해 소외, 배제된 집단은 열등한 존재로 보호와 통제의 대상이 된다. 어른이 아이들을 미성숙하고 생각 없는 존재로 간주한다든지, 이성애자가 동성애자를 정신병자로 보는 것이라든지, 1세계 국가가 아프리카인을 미개하고 야만적인 존재로 그리는 것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부정적이고 열등한 이미지가 약자들에게 부과되고 결국 그 과정에서 편견과 고정관념은 강화되고 재생산된다. 이를 통해 힘 있는 이들은 그들끼리의 결속력을 높이고 자기 정체성을 공고히 한다. 자신의 존재감을 차별적으로 확인하고 ‘타인’을 배제함으로 자신들의 우월한 지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자 한다. 또한 차별은 사회가 구성원 전체를 효율적으로 통제하도록 돕는다. 예를 들어 비혼자에 대한 편견과 제도적 차별을 통해 사회구성원 모두가 결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인식하게 될 때, 구성원들은 스스로 자기 검열, 혹은 자기 통제를 하게 된다. 소수를 통제함으로 전체를 통제하는 것, 이것이

차별의 효율성이다. 구성원들은 통제된 사회가 안정적이며 다양성을 인정할 때에 질서가 무너지고 사회적 혼란과 불안이 가중될 것이라 여기게 된다.

차별에는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개인적 차별 뿐 아니라 제도적 차별, 구조적 차별도 있다. 뒤로 갈수록 한 개인이 차별이라고 느끼지 못한다. 예를 들어 보자.

교회에서 함께 일하는 부부목회자 있다. 어느 날, 여성목회자에게 담임목사가 그의 개인적 의견으로 남편이 목회를 잘하게 하기 위해 부인이 사직서를 쓰고 ‘사모’역할을 하는 게 좋겠다고 ‘권유’했고 여성목회자가 사직했다면, 이는 개인적 차별이다. 또, 담임목사의 말이 당회의 지침에 의한 것이거나 그의 개인적 의견 표명이 여성 목회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친 것을 알고도 그러한 사실을 그대로 교회의 당회가 묵인하였다면 이는 제도적 차별에 속한다. 끝으로 교회가 의도하지 않았으나 부부목회자 중 여성목회자의 도중 하차 비율이 남성목회자의 도중하차 비율보다 현저히 높다면 이는 구조적 차별이 있는 것으로 입증된다.

위계화되어 있는 차별을 해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게임의 법칙, 혹은 게임 자체를 새롭게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또 다른 시선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세상의 기준이었던 백인, 남성, 이성애자, 비장애인, 어른의 눈이 아닌 다른 눈으로 세상을 보는 눈이다.

평등감수성이란 바로 이 시선이다. 당연한 듯 서 있었던 축을 벗어나 새로운 축으로의 이동을 의미한다. 새로운 축에 서서 나, 타인, 나아가 세상의 불편함에 얼마나 민감한가를 묻는 것이다. 이것은 개인뿐만이 아니라 교회, 사회, 나아가 국가에 까지 끊임없이 되물어야 한다. “우리의 평등 감수성은 얼마만큼일까?”

(2) 왜, 교회에서 평등감수성을?

그러나 교회에서 축을 옮기는 작업은 쉽지 않다. 교회는 뿌리 깊은 권위주의를 토대로 하고 있으며 오랜 시간 다양한 차별이 체계적이고 은밀하게 자행되어왔다. 이런 공간에서 생활해온 이들에게는 차별에 대한 둔감함이 내면화된다. (강남의 한 대형교회 20대 여성의 인터뷰가 떠오른다. 담임목사의 ‘여성은 남성에게 복종해야 합니다’라는 주일 설교를 들을 때 어떨냐고 물었을 때, ‘그 이야기 이면에 다른 뜻이 있을 텐데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분명히 다른 맥락이 있을 것이다’라고 받아들이며 따라서 불편하지 않다고 대답했다.)

교회 안에서 좋은 인간형은 자기 주장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다른 사람과 갈등을 일으키지 않으며 조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사람이다. 차별에 대하여 문제제기 하고 저항하고 싸우는 것은 공동체에 분란을 일으키는 ‘비신앙적인 사람’, ‘덜 성숙한 사람’이라는 주변의 비난을 감수할 용기가 있는 상태에서만 가능하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공동체 내 저항의 소수자들이 교회에서 이탈하거나 저항의 실패의 경험을 통해 ‘적당히 타협’하는 ‘합리적’ 개인이 되어 가는 일도 이미 우리에게 낯설지 않다.

교회의 시작을 다시 기억해야 할 때이다. 예수의 뜻을 따르던 이들이 처음 어떤 이들과 함께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시작하였었는지, 복음으로 인하여 그들 사이의 다름을 어떻게 극복해나갔었는지, 서로를 무엇이라 불렀었는지를, 하나님 나라의 현존으로서의 교회가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존재했는지를 말이다. 처음의 자리를 기억함으로, 잊지 않음으로, 미래를 존재하게 할 수 있다.

(3) 사소한 조치가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력. 하나를 풀면 다른 것도 풀린다.

(4) 감수성은 절대적이지 않다. 그리고 끝이 없다. 끊임없이 자신에게 물어야.

2. 차별나무 만들기

- 현상 + 뿌리

- 언어, 예배, 교회법, 문화, 회의 구조, 예배당 구조, 옷차림, 직책, 공동식사

- 여성(vs)남성, 성적 다수(vs)성적 소수,

나이: 어린(vs) 아이(vs) 청소년, 장애여부,

교회직분 : 목회자(vs) 평신도, 장로(vs)평신도,

결혼여부 : 비혼(vs)기혼, 외모, 학력, 권력, 숫자, 인간(vs)동물

3. 말씀이 우리 안에

• 갈라디아서 3장 26절-29절

“여러분은 모두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삶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를 옷 입듯이 입었습니다.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은 모두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2

대중문화 속에 나타난 여성

송화숙 | 이화여자대학교/가톨릭대학교 강사

1. 당신은 여성인가?

1980년대부터 서서히 불거지기 시작했던 여성주의 논의를 발판으로 2000년대에 접어들게 되면서 성에 관한 담론은 사회 전반에 걸쳐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각인되어갔으며, 특히 여성성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펼쳐져 가면서 이전 시기와 다른 새로운 여성상은 공공의 영역 및 사적 영역에서도 핵심적인 화두로 자리 잡아 나갔다.

성차에 따른 불평등 구조와 이 속에서 한 여성이 겪어야만 했던 억압과 착취 등 여성의 사회적 지위 및 가정 내에서의 역할부담에 대한 비판과 이의 개혁을 목표로 삼았던 초기 여성주의 운동의 움직임으로부터, 상대적이지만 보다 향상된 여성지위를 획득하게 된 현재를 살아가는 여성의 모습은 다양한 지표로 발현된다. 확대된 자기실현 (직업 및 이의 선택)의 기회 및 여성 발언권을 행사하는 여성, 남성보다 능력 있는 여성캐리어우먼, 스스로를 페미니스트이자 성적으로 해방된 여성으로 자처하는 여성 등 오늘날의 여성상은 광범위한 층위에서 고려되어야 하지만 적어도 “여자란 세상의 흑인”이라고 노래했던 존 레논의 구호가 반드시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는 것만은 확실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질문은 여전히 복잡하고도 다층적이면서도 유효한 의미를 획득한다. 즉 “당신은 여성인가?” 이를 마주 대했을 때 느끼게 되는 난감함은 무엇보다 이 질문이 공적인 영역과는 구분되는 사적이고도 내면화된 지점, 말하자면 자신의 (성)정체성을 겨냥하는 질문으로 환원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 난감함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은 “능력 있는, 남성과 동등한 여성”이 아니라, “여성적인 여성”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이다.

2. 당신은 섹시한가?

서구의 지적 전통은 오랜 시간동안 세계 및 대상을 이분법적 구조틀 안에서 파악해왔다. 수잔 맥클러리 Susan McClary에 따르면 이는 상대개념들을 한데 묶어놓은 엄격한 규범으로, 예컨대 문화/자연, 객관성/주관성, 합리성/비합리성, 기의/기표, 정신/육체, 의미/감각 등의 대립구도가 이에 속한다. 이러한 이분법적 대립구조가 가지는 한계는 한쪽 측면이 다른 한쪽에 대해 우월권을 보장받으며 다른 측면을 억압하고 배제시킨다는 데 있다. 남성(성)과 여성(성)이라는 대립 역시 이와 같은 구도 속에 자리 잡고 있으며, 남성의 남성다움은 “강함, 용감함, 정의로움, 지도자적, 외면적, 공격적, 적극적, 대범함”

등 대체로 전통적 이분법적 구도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되는 측면 (문화, 객관, 합리, 기의, 정신, 의미 등)을 표상하게 되며, 여성의 여성다움은 “소극적, 순종적, 약함, 내면적” 등 그 반대편의 지점들, 즉 자연적, 주관적, 비합리적, 기표, 육체, 감각등과 동일 선상에 놓이게 됨으로써 부정적인 것으로 간주되어왔다. 1980년대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철학적, 이론적 경향들은 이러한 전통적 대립 관계와 그에 따르는 긍정/부정, 선/악의 고정적 가치평가를 비판하고 이를 전복시키고자 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실제의 삶과 생활 속에서 어떻게 이러한 비판과 해체가 시도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노선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2000년대 이후 그동안 간과되거나 부차적인 것으로 치부되어왔던 여성(성)과 육체라는 측면은 가히 폭발적이라 할 만큼 대중문화에서의 주요한 화두가 되어왔다. 과연 어떠한 여성, 어떠한 육체성이 비판적이고 대안적인 함의를 지닌 이상적 모델이 될 수 있을까. 이와 같은 논의는 무수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으며 그 대략적인 이슈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1. 억압받아온 여성성과 여성의 육체를 해방시켜 자유롭게 발산, 여성의 육체성을 전략적으로 사용
2. 이미 구조화된 남성위주의 세계에서 여성의 성성 및 육체성을 발현하는 순간 이는 남성적 욕망을 충족시키는 역할로 전략하게 됨
3. 무성(無性)적인 (여성성이 삭제된) 성성 (ex. 남성적, 소녀적, 어머니적)

이러한 논의들을 주축으로 본 강좌에서는 대중문화에서 이미지화 된 다양한 여성의 모습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3

여성의 눈으로 보는 성서의 인간

이영미 | 한신대학교 교수

1. 질문하기

인간의 성과 관련해서는 여성의 본성과 지위에 관한 논쟁이 창세기를 근거로 오랜 세월동안 진행되어 왔다. 창세기의 창조본문은 인간 창조에 대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으며, 기독교 전통은 성서와 문화를 바탕으로 인간에 대한 고정관념을 형성해왔다. 기독교는 인간을 특별히 여성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인간은 왜 창조되었나?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피조되었나?

여자의 창조 이유/목적은 무엇인가?

여자의 종속은 창조질서 때문인가 아니면 죄에 대한 심판의 결과인가?

창조질서의 남녀관계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2. 성서의 인간이해 들여다보기

1) 성서가 말하는 인간창조

(1) 창조주와 인간의 관계(연관성)

창세기 1장: 인간창조주로서의 엘로힘(하나님)은 “우리”로 묘사된다. 창조주의 성별 구분에 대한 언급이 없이 공통 1인칭 주어로만 언급된다. “우리”의 성성은 그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과의 병행을 통해 밝혀진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분이 그들을 창조하셨다

그분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창 1:27)

창세기 2장: 하나님이 아담의 손을 잡고 에덴 동산으로 인도함.

에누마 엘리쉬: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대표적인 창조 신화, “에누마 엘리쉬”에는 창조주로서의 신들

이 여성과 남성 신의 공동창조행위로 묘사된다.

(2) 창조의 방법

창세기 1장: “...하자”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언급없음.

창세기 2-3장: 젖은 흙으로 인간을 빚은 후 코에 생기(하나님의 숨)를 불어넣어주심.

에누마 엘리쉬: 반역자 신의 피와 흙을 빚어 만듦.

(3) 인간과 동물 사이의 관계(연관성)

창세기 1장: 육축동물과 동일한 날에 창조됨

창세기 2-3장: 인간과 동물 사이의 연관성을 강조 (모두 흙에서 창조됨)

에누마 엘리쉬: 동물 창조에 대한 언급 없음.

(4) 인간에 대한 평가

창세기 1장: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ki tob’라는 평가가 빠져있다. 창조 이후 기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다”는 말을 덧붙이지만 인간창조와 궁창의 창조에는 이 말이 빠져있는 것이다. 이러한 생략은 인간의 속성이해(8:21)와 악의 근원지로서의 궁창에 대한 이해 때문이 아닐까 추측된다.

창세기 2장: 인간의 창조는 인간과 동물은 땅으로부터 만들어진 존재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출발한다. 처음에는 인간역시 동물처럼 옷을 입지 않았다. 그러나 인간이 지혜를 갖게 됨에 따라 자신이 벗게 된 것을 알게 되고, 옷을 입게 된다. 옷이란 인간의 독특성을 상징한다. 그들은 동물과 같은 존재에서 신과 같은 존재로 격상한다. 이런 연유로 쫓겨난 인간들은 계속적으로 ‘신과 같은 존재’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도전하지만 실패한다(창 2-8장). 바토(Batto)는 하나님이 이들에게 동물의 가죽 옷을 입힌 이유가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동물과 유사한 위치에 있음을 상기시키는 의미라고 해석한다(바토, Creation Theology in Genesis, 29). 인간의 지혜 획득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아니라 인간이 불복종을 통해 얻은 것이다.

에누마 엘리쉬: 반역의 신의 피로 피조된 잠재적 반역자들. 소란스럽고 하찮은 존재들.

(5) 인간 창조의 목적

창세기 1장: 생육하고, 번성하라

창세기 2장: 에덴 동산을 지키고 가꾸는 이.

에누마 엘리쉬: 작은 신들을 위한 노동력 제공자.

(6) 성의 창조

창세기 1장이나 에누마 엘리쉬에는 인간의 성에 대한 구체적인 구분이나 묘사가 없다. 에누마 엘리쉬는 대신 신의 성별을 구별하여 남신과 여신으로 등장시킨다. 여신 티아마트은 신의 최고 지도자였지만 마르둑에게 패배하고 그의 몸은 세계창조의 질료가 되된다. 여성의 생명탄생의 출산기능이 땅(가이아)

이 여성으로 신화화되는 것과 같이 에누마 엘리쉬 역시 우주창조의 질료를 여신의 몸에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이해.

에누마 엘리쉬가 남신과 여신, 그리고 인간을 등장시키지만 창세기 2장은 하나님과 남자와 여자로 인간을 묘사한다.

남신	여신	신
인간	남자	여자

2장에서 성의 창조는 창조의 절정이었고 아담의 감탄을 통해 그 기쁨이 잘 묘사된다. 그리하여 2장은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으로 결론 맺는다. 죄의 결과는 모든 창조의 질서가 파괴를 가져온다. 성의 조화 역시 깨지고 남자에게는 노동의 고통, 여자에게는 출산의 고통이라는 심판의 결과를 안겨준다.

2) 바울의 재해석

고린도전서 11:3-12

3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 4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5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6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 지니라 7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8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9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10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11 그러나 주 안에 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12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디모데전서 2:11-15

11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12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13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14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15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3) 초대 교부들의 해석

(1) 어거스틴의 “창세기의 문자적 주석”

어거스틴은 인간을 영혼-육체의 이원론에 의해 설명. 하나님의 정신적 형상은 본질적으로 남성적이

며 여성적인 것은 보다 열등한 육체적 본성과 동일시된다. 그에게 “원아담”은 인격에서는 단일하나 남성적 정신과 여성적 육체성을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본성에서는 복합적이다.

“혹자가 1:27은 인간의 영을 언급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2:4이 인간의 몸에 적용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이는 몸과 관련되어서가 아니라면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지못하는 그릇된 해석이다.” (III.34)

“남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것은 오직 영에 따라 만들어졌지만, 남녀가 불변의 진리를 향한 관상에 전념하는 점에서 (정신소유)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으나 여자는 약한 지성을 가지고 있으며 고등한 이성에 따라 살기보다는 열등한 육신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존재인 듯하다. 이것이 사도바울이 하나님의 형상이 여자에게 있다고 말하지 않은 이유가 아닌가? 고전 11장 7절의 말은 여자의 마음이 동일한 “형상”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자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함께 임하는 은혜들을 아직 받지 못하였고 오직 점진적으로 남자의 통치와 관리하에 이를 성취해야 했을 것이다.” (XI, 42) 즉 어거스틴은 남성은 혼자서도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을 지니지만 여성은 혼자서는 결코 그 형상을 지니지 못하며 오직 “여성의 머리인” 남성과 함께 할 때만 그 형상을 가진다고 결론을 내린다. 로즈마리 류터는 이를 “여성혐오사상(misogynism)”의 결정적인 핵심으로 본다.

여자는 우정과 대화를 위해서도 아니며 오직 출산을 위해 창조되었다 (IX, 5)

어거스틴은 남자-여자, 영혼-육체의 이원론을 그대로 적용. 육욕, 물질성, 사악성 등의 특성은 여성에 귀속시키는 반면 순결, 인내, 지혜, 절제, 용기와 정의는 남성적 특성으로 여겨진다. (암브로스, 가인과 아벨, 1.4) 어거스틴은 또한 남성은 아내의 정신적 본성을 사랑하라고 권고하지만 동시에 아내의 모든 육체적 기능들을 경멸하라고 권고한다.

(2) 요한 크리소스톰, “창세기 강해”

콘스탄티노플의 주교, 386년에 사제로 서품을 받았다. 398년네 콘스탄티노플의 주교가 되어 부패한 황실, 성직자, 민중의 개혁을 위해 노력했다. 결국 404년 교회법으로 폐위되어 유배당하고 407년에 사망.

“형상이란 본질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권위에 관련되는 것이다.” (II, 2) “남녀는 형상, 특성, 모양은 하나이기 때문에 남녀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바울은 모양에 관련된 형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권위에 따르는 형상을 말하고 있으며 이것은 오직 남자만이 가지고 있고 여자는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남자는 어느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지만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하기 때문이다.” (3:16)

“불순종 이전에는 여자는 남자와 동등했다.” (IV, 1)

(3) 이레니우스 (130-200) “모든 이단 논박”

“하와의 불순종의 매듭은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 풀어졌다. 왜냐하면 처녀 하와가 불신앙을 통해 맨 것을 처녀 마리아가 신앙을 통해 풀었기 때문이다. (III, 22.4)

“사도적 설교의 논증”

“첫 사람 아담 안에서 우리는 모두 불순종으로 인해 사망에 묶였으며, 우리를 위해 인간이 되신 분의 순종을 통해 우리가 죽음에서 풀려나는 것이 필요했다 ... 사망이 육신 안에서 다스리기 때문에 사망이 육신을 통해 분쇄되어 인간을 억압에서 풀어주게 하는 것이 필요했다. 따라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육신을 통해 지배하고 있는 죄가 육신으로 통해 분쇄되어 죄가 더 이상 우리 안에 존재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러한 이유로 주님은 첫 사람과 동일한 육신을 취하셔서 우리가 조상들을 위해 싸우고 아담안에서 패배한 우리들을 아담 안에서 승리하도록 했다.” (31)

“더욱이 불순종한 처녀를 통해 인간이 타락하고 죽었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처녀를 통해 인간은 거듭났고 생명을 얻었다.” (33)

(4) 터툴리안 “악마의 문 (the Devil's Gateway)”

여성의 본성은 남성의 타락을 초래하고 드디어는 그리스도의 죽음의 필연성에까지 이르게 한 특별한 죄에 의해 영원히 낙인찍혀져 있다고 본다(Tertullian, de cultu feminarum, 1.1)

여성의 구원 : 처녀는 여성의 열등한 본성을 극복하여 구원받을 수 있다. 남성은 금욕을 통해 남성 본래의 정신성을 회복하는 것. 따라서 죽음에서 부활할 때 남성들과, 남성들로 변형된 여성들만이 있게 될 것. 어거스틴과 제롬은 인간이 남성의 육체로도 여성의 육체로도 부활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부활한 육체들은 정신적 육체로서 성적 본능을 전혀 갖지 않은 것이며 부활한 여성의 몸은 특별히 성행위와 출산에 관계되는 기관들을 박탈함으로써 여성의 몸은 “수치보다는 영광에 적합한” 몸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게 되었다.

여성의 육체적 모습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교부들의 강박관념은 교부문학에서 볼 수 있는 여성의 이상, 장신구 및 외모 등의 문제에 관한 특별한 관심은 자신의 여성다움을 드러내거나 과장하는 어떤 장신구도 벗어던지고 볼품없는 옷을 입고 베일을 써서 수족과 얼굴을 가려야한다는 공의회의 입장 과도 같다고 로즈마리 류터(Rosemary Ruether)는 비판한다.

여자의 목적은 출산인 이상, 남자들이 여자의 몸을 성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조절할 권리가 여자들에게는 없다. 즉 남편은 아내의 육체에 대해 소유권을 가지며 남편의 요구를 아내는 거부할 수 없으며 낙태는 금지된다. 이상적인 부부생활은 부부가 오직 출산의 목적으로만 성행위를 하는 것이다. 타락후 성적인 기관들은 죄로 말미암아 무질서하게 되었으며 부부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성적 쾌락이라는 난잡한 부산물이 생겨났다. 어거스틴은 이 자발적인 성적 충동은 본래적인 죄라고 본

다. 아이는 수단으로서의 죄의 성격 (성행위)이 아이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끼쳐 원죄에 물 든 채 태어난다. 따라서 성행위를 통해 원죄가 유전된다.

3. 대답하기

1) 한국교회의 인간 이해

한국교회는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기독교 신앙전통과 한국 문화는 한국교회의 인간 이해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한국교회의 인간이해는 얼마나 성서에 근거하고 있는가? 토의해보자

2) 나는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나의 이해는 무엇에 근거하고 있는가?

4

교회사에 나타난 여성들

양현혜 |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1. 서론

한국 개신교는 ‘자주적 근대’를 모색하는 근대 한국의 역사와 교착하면서 스스로를 형성·전개해 왔다. 특히 초기 역사 속에서는 조선 정부의 해체 및 식민지화 과정과 관련하여 새로운 사회 형성을 위한 계몽적 사회사상으로서도 적지 않는 영향력을 행사했다. 근대적 언론, 출판, 교육, 의료 운동과, 백정 등 천민 계급의 해방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수평 운동, 그리고 민족독립운동에 커다란 족적을 남겼던 것이다. 또한 한국 개신교는 여성의 해방과 ‘인간화’의 측면에서도 한국 사회에 적지 않은 기여를 했다.

고유한 인격으로서 또한 공적인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위치를 부정당하고, 오직 남계 혈족의 유지를 위한 보조자로서의 삶을 강요당했던 여성들에게 기독교의 인간관은 혁명적인 복음이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남성이나 여성이나 모두 자유롭고 평등하다(갈3: 28)는 복음의 선포는, 당시의 한국 여성들에게는 새로운 삶과 자유를 고지하는 혁명적인 선언이었다.

본 논문은 초기 한국 개신교가 한국 여성들의 삶을 해방하고 변혁하는 데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즉 기독교의 메시지는 한국 여성들의 자기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며 여성들의 삶을 변화시켰는가, 그리고 이를 통해 한국의 가부장제적 성차별 문화를 어떻게 변혁시키며 여성의 해방과 평등이라는 과제를 실현해 나갔는가, 나아가 이 과정을 저변에서 뒷받침하는 종교적 영성은 무엇이었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2. 가부장제적 사회 규범과 기독교 여성들의 자기 인식

기독교가 수용될 당시의 한국 사회는 철저한 남존여비적 성차별 사회였다. 한국 개신교 초기의 여성 선교사의 한 사람인 릴리어스 언더우드(Lilias H. Underwood)는 1888년 3월 서울에 도착하였다. 그녀는 자신이 본 조선 여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조선 여자는 대체로 아름답지 않다. ……슬픔과 절망, 힘든 노동, 질병, 애정의 결핍, 무지 그리고 흔히 수줍음 때문에 그들의 눈빛은 흐릿해졌고, 얼굴은 까칠까칠해졌으며, 상처투성이가 되었다. 그래서 스물다섯이 넘는 여자에게서 아름다움 비슷한 것을 찾으려는 것은

헛일이다. 다만 아직 무거운 걱정거리나 힘든 노동에 시달리지 않는 나이 어린 소녀들과 젊은 부인들 중에는 종종 예쁘고 깜찍한, 그리고 가끔 드물기는 하나 아름답기도 한 활짝 핀 우아한 모습을 한 이를 볼 수 있다.

물론 이 글을 기록할 때 언더우드는 ‘한심한 나라’ 조선에 ‘서양 문명의 효모’를 발효시킨다는 사명감에 불타는 전형적인 오리엔탈리스트(Orientalist)의 감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술은 이차적인 성(性)으로서 억압당하는 당시의 조선 여성의 슬픔을 잘 전해 준다. 조선 시대의 여성들은 자기를 잃어야 본래적인 인간성에 도달할 수 있다는 가부장제적인 기제들에 의해 관리·억압되고 있었다.

가부장제는 조선 시대의 중기에 완결되어 사회 제도화되었다. 가부장제에서 남성의 역할은 국가 구성원인 민(民)의 일원으로서 사회, 경제, 정치적 영역으로 확대되는 반면, 여성은 좋은 아내, 며느리, 어머니라는 즉 남성에 부속되는 존재로서 그 역할이 한정되었다. 여성들의 이러한 종속적 성격은 어렸을 때는 아버지에게, 성인이 되어서는 남편에게, 늙어서는 아들에게 종속하라는 ‘삼종지도(三從之道)’에 의해 극단적으로 강화되었다. 여성에게는 민법에 의거하여 호주가 될 권리, 제사를 계승할 권리, 재산을 상속할 권리가 부정되었다.

한편 여성들을 가부장제적인 질서 속에 구속하는 이데올로기적 기제로서 ‘삼종지도’ 이외에 ‘내외법(內外法)’과 ‘절열관(節烈觀)’이 있었다. ‘내외법’은 여성의 생활 영역을 가정내로 한정하여 여성들에게 가정 이외의 모든 생활을 철저히 금지하였다. 즉 여성이 교육을 통해 자기를 개발할 기회와 사회적 자아실현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규범이었다. 결국 여성의 유일한 존재 양식은 혼인 관계로 구성된 가정생활이었으나, 혼인제도 그 자체도 여성에 대한 억압의 원칙으로 일관되었다. 부계의 계승을 목적으로 하는 일부다처제라는 여성 억압의 상황에서도 ‘여필종부(女必從夫)’의 ‘절열관’을 확립하여 과부의 재가 금지와 여성의 이혼 청구권 부정을 법제화하며 여성 억압을 극대화했던 것이다.

따라서 한국개신교 역사의 여명기 속에서 여성들과 기독교의 해후는 가부장제적인 질곡으로부터 탈출하려는 여성들의 원망(願望)이 그 계기를 이루고 있었다. 기독교에 입신한 여성들은 첩을 둔 남편을 인내하며 오로지 시부모의 공양에 전념해야 하는 삶 속에 갇혀 있었던지,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남편과 시집의 학대 속에 고통 받고 있었던지, 또는 가난과 모진 시집살이로 인해 정신 질환까지 앓는 생활 경험의 소유자들이었다. 특히 가부장제적인 사회에서 여성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소속 의식이자 보호이기도 했던 남편의 가계와의 연결이 이완된 과부라는 신분의 여성들이 많았다.

이런 여성들은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박탈당한 채 억압속에서 소모되는 자신의 생(生)을 “금수보다 낫다하랴 하고 주야로 탄식”하며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 이 때 여성들을 존귀하다고 하는 신기한 종교인 기독교를 접하게 된 것이었다. 여성들은 기독교를 더 알고 싶은 호기심에서 몇 십리 길을 왕복하며 선교사를 찾아가 『신덕경』, 『세례문답』, 『미이미교회문답』 등의 책자를 받아 와 구도의 생활을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세례를 받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그러나 전통적인 가부장제적 사회는 그녀들의 새로운 신앙생활을 쉽게 인정하지 않았다. 아버지나 남편 또는 아들과 관계없이 스스로 종교를 선택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삼종지도에 위반되는 것이었다. 또한 그들의 반대에도 개의치 않고 신앙을 고수하겠다는 것은 가장권에 대한 묵과할 수 없는 도전으로 비추어진 것이었다. 양반 부인으로서 기독교에 입신한 김덕선은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나의 남편이 내게 온갖 핍박을 다하여 예수를 못 믿게 하다가 끝끝내 듣지 아니하니까 나 중에는 나의 손목을 끊어 버리겠다고 하고 칼을 들고 내게 달려들어 손목을 쳐서 피를 말 할 수 없이 많이 흘렸으되 나는 조금도 그를 원망치 않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여성들은 남편과 시댁으로부터 비난과 구타, 심지어는 강제 이혼을 당하는 박해를 받을 뿐 아니라, “예수를 따를 것인가, 아버지를 따를 것인가. 예수를 선택한다면 나의 딸이 아니다”라는 양자택일을 강요하며 전통적 가부장제의 규범과 충돌했다.

생명까지도 위협받는 박해 속에서 여성들은 왜 전통적인 가치관과 결별하며 기독교 신앙을 고수하였을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아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에게도 영혼이 있음으로 “하나님이 세계 인생을 지으실 때에 사람은 다 한가지라. 여자도 남자와 동등권을 가져 인생에 당한 사업을 다 각기 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고 하는 기독교의 메시지는 초기 교회 여성들에게 여성으로서의 자기 존재를 남성과 동등한 축복받은 존재로서 스스로 긍정하게 하는 새로운 의식의 지평을 열어준 복된 소식이었다. 또한 자신들과 같이 무지하고 차별받는 존재를 위하여 죽음으로써 ‘새 사람’이 되게 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여성들은 모든 존재에 대해 근원적인 근거와 약속을 부여하는 절대자의 사랑을 체험했다.

남성과 동등이 창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대속(代贖)에 의해 ‘거듭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은 여성들에게 자신들이 본래적인 충만한 인격 상태로 회복된 새로운 존재임을 확신하게 했던 것이다. 이 확신은 여성들에게 과거에는 결코 느껴보지 못 했던 자기 긍정과 자긍심, 그리고 스스로의 권위를 자각하게 했다. 이것은 많은 초기 기독교 여성들에게 나타나는 하나의 ‘계시적인 경험’이었다. 일상적인 단편적 의식을 넘어서서 삶 전체의 방식들을 조명하는 해석학적인 상징들을 제공해 주었던 이 획기적인 경험은 여성들로 하여금 자기 아이덴티티를 재구성하도록 강력하게 추동했다.

아이덴티티라는 말은 자기 자신과의 영속적인 동일성(=자기 동일성)과 어떤 종류의 본질적 성격을 타자와 영속적으로 공유하는 것을 포함한 상호 관계를 나타내는 개념을 말한다. 따라서 아이덴티티는 근본적으로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정립하느냐 하는 관계 개념인 것이다. 종래와 같이 여성들이 남성을 매개로 하여 인간성을 실현할 수 밖에 없는 이차적 존재라고 할 때 여성의 아이덴티티는 필연적으로 아버지, 남편, 아들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기독교에 입신한 여성들은 “이 세상 누구에게도 아버지, 주인, 또는 주여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마태 23: 1-10)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주 안에 굳세게 서라’는 것을 자기 삶의 원점으로 삼았다.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것, 즉 절대자와의 직접적인 관계라는 새로운 원리를 발견해 낸 것이었다.

남성을 매개로 하지 않는 절대자와의 직접적인 관계라는 원리는 가부장제적 권위를 근거로부터 상대화시킨다. 평양 남산현 교회의 전도사 백인숙은 다음과 같이 가부장제적 의무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키고 있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딸로서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려고 해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그런 효도는 할 수 없어요. ……이 딸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효도를 하는 것입니다.

절대자가 자기의 왕이며 아버지인 것이다. 하나님께 일차적으로 귀속되어 있다는 의식은 의무에 충실한 딸이나 부인 또는 어머니로서 집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부덕(婦德)의 윤리를 압도하는 것이었다. 이 인식을 통해 여성들은 전통적인 가부장제적 속박으로부터 스스로를 해방할 수 있는 계기를 획득하게 되었다. 종속적인 존재규정에서 자기를 해방하고 독립적인 자율적 존재로서 스스로를 재정립하게 된 이 체험을 두고 서북 지방 여성으로써 최초로 세례를 받은 전삼덕은 “예수를 안 후 나는 자주한 인간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었다.

한편 아이덴티티는 사회와 공동체를 상대로 ‘나는 어디에 속하는가’라는 귀속 의식을 문제시한다. 독립적인 자율적 존재로서 스스로를 자각한 여성들의 아이덴티티는 그 귀속 집단을 확대하여 보다 넓은 자기 아이덴티티를 구성할 필요가 있었다. 여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마가 3: 24)라는 예수의 말씀에 의거해, 보편적 타자를 자신의 형제.자매로 받아들임으로써 자신들을 타자에 대한 책임적 주체로서 확대해 갔다.

여성들의 이러한 타자에 대한 책임 의식은 먼저 기독교 신앙을 전파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초기 기독교 여성들 대부분이 자신들이 만난 절대자와 해방 체험을 증거하려는 신앙적 희열뿐 아니라 타자에 대한 관심에 이끌려 ‘전도부인’이라는 새로운 삶의 양식을 선택했다. ‘자기 일신만 구원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오지에까지 들어가 격리되어 있던 다른 여성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다. 대표적인 전도부인이었던 김서커스에 의하면, 그녀의 전도 영역은 평안남도에서는 평양, 강서, 증산, 함흥, 삼화, 용강, 진남포, 중화, 순안, 숙천, 안주, 성천, 순천이었고, 평안북도에서는 영변, 대천, 운산, 회천, 정주, 박천이며, 황해도에서는 수안, 신개, 서흥, 봉산, 황주에 이르고, 총 도보 여정은 2,900리에 이르렀다고 한다. 실로 초인적인 전도 여정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전도 여행 중 전도부인들은 성서와 찬송가를 천으로 싸서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며 팔기도 하고 간단한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하였다. 글을 모르는 여성들에게는 읽는 법을 가르치며 듣기를 원하는 여성들에게는 읽어주고 노래를 불러주었다. 어느 전도부인의 개인적 보고에 의하면, 그녀는 연간 6,730명의 여성을 방문했고 그들에게 구원에 대해서 말했으며 성서를 4,491권이나 팔았다고 한다.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자 전도부인들은 교역자가 압도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100여리나 되는 거리의 각 지방에 흩어져 있는 수 십개의 교회를 순회하며 연간 200회 이상의 사경회를 이끌며 교회 여성들의 교육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짧으면 4일간 길면 2주일씩 걸리는 사경회에서는 주로 성경을 가르쳤지만, 그 외에도 한글, 산술, 위생학, 혼례, 금주, 금연, 조혼의 폐해, 풍속개량, 자급방침 등 일반적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들을 가르쳤다. 따라서 사경회는 정규 교육을 받지 못 하는 여성들에게는 일종의 계몽 교육을 실시하는 장소이기도 했다.

전도부인들은 과감하게 옥외(屋外) 활동을 전개하여 ‘내외법’이라는 규범으로 상징되는 전통사회의 가부장적인 남녀의 공간 구별과 역할 구별을 근저로부터 뒤흔들어 놓았다. 동시에 외부와 차단되어 있던 여성들을 교회라는 공적인 활동의 장으로 유도해 냄으로써 한국 여성들을 수백년간 움아 메왔던 ‘내외법’의 족쇄로부터 해방시켰던 것이다.

편협한 가부장제적인 가족 공동체에 속박되어 딸, 아내, 어머니의 역할만을 강요당했던 여성들이 이제 절대자와의 직접적인 관계를 매개로 하여 교회라는 자발적 공동체의 책임적 구성원으로서 스스로를 확대해 가게 된 것이었다. 마침내 1905년에는 한국 교회에서 남성과 여성의 성비가 역전하여 여성

인구가 남성 인구를 상회하기에 이르렀다. 서북 지방에서 최초로 세례를 받던 전삼덕이 ‘내외법’을 어길 수 없어 휘장 안에 난 작은 구멍으로 머리만을 내밀어 겨우 세례를 받았던 1894년의 정황에서 볼 때 격세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일이었다.

3. 초기 한국 개신교와 여성

‘내외법’의 구속력에서 스스로를 해방하고 자율적인 존재로서 자신을 체험하게 된 초기 교회 여성들은 ‘교회’라는 해방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교회’는 여성들에게 그녀들이 확립한 새로운 정체성을 지지해 주는 새로운 준거 집단이었으며, 교육을 통해 자기를 확대해 갈 수 있는 자기 확충의 장이었기 때문이다. 초기 개신교 교회 건축의 대부분이 여성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가능했다. 여성들은 교회에 사재를 털어 헌납하기도 하였고, 교회당 건축에 남자와 똑같이 흠을 저 날려 노동으로 봉사하기도 했다. ‘성미제도(誠米制度)’를 통해 교회의 재정을 보조한 것도 외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한국 여성 특유의 헌신이라 하겠다. 일정한 고정 수입이 없었던 당시의 여성들은 그들의 경제적 재량권 하에 있는 유일한 자원인 쌀을 매일 한 수저씩 저축하여 교회의 재정을 지원했던 것이다.

또한 여성들은 자기 시간의 십일조를 하나님께 바치는 방법으로 전도에 임했다. ‘십일조부인’이라고 불리우는 이들은 1년 52주 중에 10분의 1인 5주를 하나님의 일, 즉 전도하는 일에 쓰기로 서약한 사람들이었다. 당시의 사료에 의하면 십일조부인들은 1년에 총 1,719명이 2,840회의 가정방문을 하여 총 5,647명을 만났으며 그 중에 830명이 신입 교인으로 등록하여 15%의 전도 성공률을 보였다고 한다. 번잡한 가사일과 가부장제적 규범 속에 있었던 당시의 여성으로서 1년에 5주를 전도 봉사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초기 한국 개신교는 소위 말하는 네비우스(Nevius) 방식에 의해 운영되고 있었다. 자립(Self-support), 자치(Self-government), 자전(Self-propagation)의 3원칙에 의거한 이 방식은 한국 개신교인의 주체적 헌신과 자율성에 근거하여 한국 교회를 형성한다는 입장이었다. 이 원칙이 실효를 거두어 한국 교회가 형성될 수 있었던 것에는 교회 인구의 과반수를 넘는 여성 교인들의 주체적인 신앙적 결단과 헌신이 있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해방공동체인 교회를 유지·형성해 나가려는 노력 속에서 여성들만의 합목적적인 단체가 탄생하게 된 것은 필연적인 결과였다. 1897년 한국 개신교 최초의 여성 단체이자 나아가 한국의 최초의 여성 단체인 ‘조이스회’가 이화학당의 교사인 여메레를 중심으로 조직되었다. ‘조이스회’는 구세주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 여성들이 동심합력(同心合力)하자는 취지 아래 조직되어 전도에 힘을 기울이는 한편, 토론회 등을 통하여 “남녀를 같은 학문으로 가르치고 동등인으로 대접할 것”을 주장하며 남녀동등권의 계몽활동도 전개했다. ‘조이스회’는 곧이어 중년 여성을 중심으로 하는 ‘보호여회’로 발전하였고, 이것이 ‘북감리교 여신도회’의 전신이 되었다. 이후 각 교회 단위로 여전도회가 조직되어 ‘전국연합 여전도회’로 발전했다. 이렇게 훈련된 여성들의 단체 조직과 운영, 그리고 관리의 역량이 마침내 1923년 국제적인 조직 체계를 갖춘 조선 YWCA의 창립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1922년 중국 북경에서 열린 YMCA에 한국을 대표해 참석하게 된 김활란과 김필레는 일본과 중국의 활발한 YWCA 활동에 자극받아 장로교와 감리교 지도자들을 설득하여 한국 YWCA를 창설했던 것이다. 이로써 한국 여성들에 의해 조직되

고 운영되는 자발적인 자원 단체가 세계적인 지평 속에서 운영되어 가는 새로운 시대가 막을 연 것이었다.

한편 ‘교회’라는 해방 공동체를 통해 새로운 정체성을 정립하며 합목적적 단체를 자율적으로 조직하고 운영해 가는 여성들의 경험은 그녀들로 하여금 성서를 자신들의 삶의 경험에 입각하여 읽고 그 속에서 구원의 소식을 발견해 낼 수 있는 해석학적 능력도 확대해 가게 했다. 주지하다시피 성서는 가부장제적 사회와 문화속에서 남성들에게 의해 기술되었고 교수되었으며 또 해석되어 왔다. 따라서 성서가 여성에게 참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비판적인 해석 작업이 필수적이었다. 이 작업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를 1933년 함남 여전도회의 회장으로 봉사했던 최영혜에게서 볼 수 있다.

그녀는 1934년 9월 5일자 기독교신보에 「채정민 목사의 ‘여자에게 언권없다’에 대하여」라는 글을 기고하였다. 여기에서 최영혜는 여성 억압의 성서적 근거로 자주 언급되는 고린도 전서의 여성관과 창세기의 인류 창조의 기사를 종래와 같은 남성중심적 시각에서가 아니라 여성의 눈으로 새롭게 해석할 것을 주장했다. 그녀는 고린도 전서는 “너무 질서없이 권리를 남용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들에게서만 낳는다고 주장”하는 우를 범한 여성신도로 소란스러웠던 고린도 교회에 한정하여 바울이 내린 목회적 처방책으로, 여성들의 언권(言權), 치리권과는 무관한 구절이라고 주장한다. 즉 고린도서에 나타난 여성 신도들의 행동 지침은 2천년전 고린도 교회의 특수한 목회적 상황에 대한 조언이지, 기독교의 여성관에 대한 보편적인 원리로 이해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동시에 그녀는 고린도 전서나 디모데 전서 이외에 갈라디아서 3장 26절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도 여자도 없다’는 남녀평등의 구절을 무시하고서는 바울의 여성관이 균형있게 파악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또한 기독교의 여성관을 고찰할 경우, 바울뿐만 아니라 복음서의 여성관도 주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님 접대라는 전형적인 성차별적 역할 분담의 입장에 선 마르다를 물리치고 토론과 대화의 몫을 주장했던 마리아의 발언권을 적극적으로 인정한 점, 예수의 수난과 부활에 여성 제자들이 끝까지 동행하여 그를 배신하던 남자 제자들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던 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이나 오순절의 성령도 남녀에게 차별없이 내려졌던 점 등 복음서의 남녀 평등적 여성관이 함께 고려되었을 때 비로소 기독교의 여성관은 균형잡힌 관점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창세기의 인류 창조에 대해서도 그녀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창조의 순서에 있어서 “먼저 지음받은 자가 권위있는 것이 아니요, 생존할 수 있는 자가 귀하고 권위있다”고 논하면서, “도움받는 자가 용사가 아니요, 남을 도울 수 있는 자가 용사요 권위자라 인정”해야 함으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지으셨으나, 아담은 도저히 홀로 생존을 유지할 수 없음을 아시고 이브를 돕는 짝으로 지으셨은 즉, 짝이라 함은 쌍방이 동일함을 이름이요 결코 도움을 받는 남자보다 지위가 낮음을 의미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창세기 2장은 남녀의 상호 의존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여성의 종속을 논할 근거는 어디에서도 읽어 낼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그녀는 여성의 출산을 범죄에 대한 처벌로 보는 논리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범죄가 인류의 역사에 들어오기 전에도 이미 여자가 출산을 담당해 왔었으므로, 이것은 “결단코 죄값이 아니요 생자(生者)에게 모(母)요, 구원의 표”로서 복된 사업이라 주장하면서 오히려 생명의 논리로 전환시키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구약 성서에도 여성 비하적 내용만이 아니라 여선지자이며 통치자였던 드보라나 미리암같은 자주적이고 지도적인 여성의 존재도 있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최영혜는 여성의 침

목과 종속을 강요하는 성서적 근거들로 오용되었던 구절들을 인간 평등의 시각에서 새롭게 해석하고 동시에 여성 비하를 비판할 수 있는 성서적 근거들을 다시 상기시킨 것이었다.

최영혜의 이러한 기독교적 여성관은 당대의 한국 개신교회의 신학적 대부였던 박형룡의 그것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그는 고린도 전서와 디모데 전서에서와 같이 여성이 남성에게 종속되어야 한다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라고 주장하면서 그 이유를 두가지 들었다. 첫째로 창조의 순서였다. “창조의 차서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남자를 먼저 짓고 여자를 후에 지어 남자의 협조자로 삼으셨으니 협조자라는 종속적인 지위에 있을 것이외다. 그래서 여자는 남자가 섞여 있는 교회 회중을 가르치거나 주관함이 불가하다”는 것이었다. 두번째로 그는 여성들이 남성보다 죄에 친화적이라는 생물학적 결함을 가졌다고 한다. 즉 “바울이 이브가 아담보다 먼저 유혹을 받아 죄에 빠진 사실을 말하며 선천적으로 여자는 남자보다 교도(敎導)의 재능이 결핍함을 지적했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박형룡은 여성들이 스스로의 구원과 덕을 달성할 수 있는 영역을 가정(家庭)이라고 주장한다. 덧붙여 신·구약의 여성 지도자 및 선지자의 존재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비상 행동’으로, 이것은 “정치의 통상 법칙을 전복하지 않는” 예외적 경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여성들을 악의 출현에 대한 속죄양으로 삼고 그것을 이용하여 역사적 예측화를 통해 여성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서구 신학의 전형적인 남성중심주의적 타락 개념을 축으로 하여 박형룡은 그의 기독교적 여성관을 전개했던 것이다. 최영혜는 한낱 이름없는 평신도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신앙과 자신의 삶을 유리시키지 않으려는 그녀의 정직한 신앙은, 자신은 하나님의 모형에 의해 창조된 존엄한 존재라는 신앙적 자각을 가지고 현실을 보게 했다. 또한 그럼으로써 거기에서 발견되는 부조리를 다시 성서에 피드백하면서 나아가 성서의 상호 일치하지 않은 다양한 여성관을 발견하고 이 부정합성을 관통하는 기독교적 여성관과 실천 모델을 새롭게 재구성해 내려는 방식으로 성서를 읽게 했다. 이것이 그녀로 하여금 루이스빌 남침례교 신학교(South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in Louisville)의 박사이며 평양신학교의 교수였던 박형룡이 결코 깨우칠 수 없었던 해석학적인 눈을 뜨게 한 것이었다.

한국 기독교 여성들이 이러한 비판적 해석학의 여과없이 서구 남성중심주의 신학이 제시하는 여성관을 그대로 내면화하여 자기정체성을 구성한다면, 기독교는 또 다시 여성을 비존재화하는 억압의 이데올로기로 전락할 것이다. 동시에 교회도 한국 기독교 여성들에게는 더 이상 해방의 공동체가 되지 못 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교회사에서 최영혜에 의해 대표되는 이러한 해석학적 통찰력이 갖는 의의는 참으로 크다. 그것은 기독교 여성들이 기독교를 통해 자신을 가부장제적 억압에서 해방시키고 한국 사회를 변혁시켜갈 수 있는 신앙적·사상적 원점이 되었던 것이다.

4. 기독교 여성과 근대 한국 사회의 변혁

1) 근대 여성교육과 기독교

한편 기독교 신앙에 근거한 여권신장론은 교회 공동체 밖에서도 여성의 자율성을 자각시키는 실천 운동을 통해 구체화되어 갔다. 여권신장론의 주장에서 그 초기부터 가장 긴급한 문제로서 제기된 것은 여성 교육의 필요성이었다. “암탉은 새벽이 없나니, 만일 새벽에 울게 되면 무슨 재앙이 있고, 여자는

우매한 것이라 만일 지혜가 있으면 집안이 조용치 못하다 하여 여자는 당초에 인류에 치지 않은” 구습을 비판하면서, 남녀를 같은 학문으로 교육하여 전국이 복음을 누리게 하자고 주장하였던 것이다. 또한 아들 딸을 동등하게 교육시키는 것을 ‘민는 자의 본분’으로 규정하고, “여인문답”이나 “아해문답”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의식 계몽 운동을 전개 해갔다.

19세기 말에는 서울, 평양, 대구, 부산을 비롯한 전국 주요 도시에 선교사 경영의 기독교학교가 설립되었다. 당시 정부나 민족주의 사립학교가 거의 다 남자 중심의 학교교육을 행한 데 반해, 기독교 계통의 사립학교는 남녀병렬주의에 의거해 남녀를 평등하게 교육했다. 1886년에 이화학당이 최초의 한국 여성 교육 기관으로서 문을 연 이래 1887년에는 정신여학교가 그리고 지방에서도 1892년 인천에서 영화학당이 설립되었다. 1897년에는 선교부의 지방 학교 설치에 관한 정책이 결정되어 전국 주요 도시마다 기독교계 여학교가 차례로 설립되어 갔다. 1908년의 통계에 의하면 장로교 계통의 기독교 여학교가 정신, 숭의, 정명, 기전, 신명, 일신 등 17개교이고 감리교계의 기독교 여학교가 이화, 배화, 영화, 정의, 호수돈, 영명등 16개교였다.

한편 1900년대에 들어가면 한국 기독교인 스스로가 설립한 자립학교도 나타나기 시작했고, 자립학교의 여학생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통계를 보면, 장로교가 1905년 795명, 1908년에 2,511명, 1912년에 1,769명, 1915년 2,597명이었으며, 감리교는 1912년 2,140명, 1915년 6,105명 등이었다. 자립학교가 증가함에 따라 선교부에서는 직접 경영하던 초등학교를 여성 중고등학교로 승격시켰다. 1906년까지 전국의 주요 도시에 16개의 기독교계 중고등 여학교가 세워졌다. 이 당시 다른 사립 중고등 여학교로서는 숙명과 진명, 그리고 동덕여학교가 있었을 뿐이다. 최초의 관립 중고등학교인 한성여학교는 1908년에야 비로소 세워졌다. 3.1독립운동이 일어난 1919년에는 기독교계 여중고등학교 재학생 수가 800여 명이었고, 정식 졸업생 수는 600여 명에 달하고 있었다. 이들 중고등학교 졸업생들이 다시 여학교 교사로 활동하면서 한국 여성 교육을 확대해 가는 주역이 되었고 나아가 근대 지식 여성층이라는 새로운 여성 세력을 형성해 갔다. 따라서 한국의 여성 교육은 기독교와 관련하여 시작되었고 발전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기독교 여성 교육 기관 중 이화학당의 존재는 특기할 만 하다. 이화학당은 미감리교 여선교사인 스크랜튼(M. F. Scranton)부인에 의해 1886년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단 한명의 학생으로 시작하였으나, 1895년 겨울에서 1896년 봄 사이에는 지원자가 쇄도하여 많은 학생을 돌려보내야 했을 정도로 학생 수가 증가했다. 이화학당에 이렇게 학생 수가 증가한 배경에는 두 가지 요인을 들 수 있다. 그 하나는 스크랜튼 부인의 교육 이념이 한국 사회의 여성 교육에 대한 위화감을 완화시킬 만한 것이었다는 점이다. 스크랜튼 부인은 이화의 교육 이념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우리의 목표는 한국 소녀들로 하여금 우리 외국사람들의 생활, 의복, 환경에 맞도록 변화 시키는데 있지 않다. 우리는 한국인을 보다 나은 한국인으로 만드는데 만족한다. 우리는 (그녀들이) 한국적인 것에 긍지를 갖는 한국인이 되기를 희망한다.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교훈을 통하여 완전무결한 한국인을 만들고자 희망한다”.

기독교 신앙은 조선인이 조선적인 것에 긍지를 가지는 것과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선인을

보완하여 보다 완전한 조선인이 되게 한다는 것이 스크랜튼 부인의 설립이념이었다. 이러한 교육이념은 기독교나 서구 근대문명을 수용함으로써 자칫 빠지기 쉬운 자신의 민족적인 전통으로부터의 탈출이나 폄하로부터 이화학당을 지켜내는 버팀목이 되었다. 이화의 교육이념은 조선여성들로 하여금 자신의 민족적인 정체성을 지키며 그것을 더욱 보완해 완성하려는 지향성을 축으로 했던 것이다. 이러한 이화학당의 교육 이념에 대하여 1887년 2월 중순경 고종황제는 구체적인 호의의 표시로 ‘이화학당’(梨花學堂)이라는 교명(校名)을 하사했다. 학교명의 하사는 정부가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학교에 대해 신임을 표명하는 일이었으므로, 학교 운영자 입장에서는 사회에서 공인된 위치를 얻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두 번째 요인으로는 당시 조선이 1895년 ‘갑오개혁’(甲午改革)으로 근대적인 제도 및 법령을 제정하여 사회개혁을 단행함으로써 한성사범학교관제, 외국어학교관제, 소학교령 등이 반포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유길준(兪吉濬)의 『서유견문(西遊見聞)』이 소개되고 ‘독립협회(獨立協會)’ 활동이 시작된 것도 이 무렵이었다. 『독립신문(獨立新聞)』은 천부인권사상에 근거한 만민평등과 남녀평등을 부르짖고 여성도 남성과 동등한 교육 기회를 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성교육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된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가 이화를 필두로 한 여성 교육이 조선 사회에 뿌리를 내리게 하는 데 크게 유효했던 것이다.

학생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화학당은 1900년부터 학제 정비에 착수하고 1910년에는 대학과를 신설하였으며, 1925년에는 보성전문학교와 연희전문학교에 이은 이화여자전문학교로서 총독부의 인가를 받았다. 식민지 시대에 이화는 유치원에서 대학에 이르는 교육의 전 과정을 포함하는 한국의 유일한 여성 종합교육기관이었다.

이화의 교육은 기독교적 도덕성을 갖춘 여성의 주체성을 함양하기 위한 지식 배양에 그 목적을 두었다. 따라서 이화의 교육내용은 근대적 지식의 함양과 기독교적 종교교육이라는 두 축으로 구성되었다. 이화의 기독교 교육이 초월적 절대자 앞에서 독립·자존하는 존재로서 여성을 해방시켰다면, 이화의 근대적 여성교육은 여성들에게 당당한 사회적 전문인으로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했다. 한국 여성들은 이러한 교육을 통해 당시로서는 남성도 꿈꾸기 어려운 미국유학을 마치고 학위를 취득하여 한국의 여성전문가 제1세대로 당당하게 자립했다. 미국에 유학하여 의학을 공부하고 귀국해 의사가 된 한국 최초의 여의사인 박에스터(김점동), 인문계에서 처음으로 미국에 유학하여 문학사 학위를 받은 하란사(河蘭史), 한국 최초의 여성박사이며 이화의 최초의 한국인 학장으로서 여성 고등교육을 이끈 김활란(金活蘭), 외국에서 최초로 유치원 교육을 전공한 서은숙(徐恩淑) 등 많은 근대 여성 전문 지식인을 배출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화의 기독교 교육은 그녀들의 전문성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봉사의 도구로 선용하게 했다. 조선 사회에서 아무 기득권도 없는 평민 가정의 딸로 태어난 이들 대부분의 기독교 여성 지식인들은 ‘사회적 약자’인 자신들을 보호하면서 또 한편으로 고난과 대결해 싸우도록 해방시켜 주시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을 믿으며 자신들의 불우함을 극복해 나갔다. 이러한 해방 체험은 기독교 여성지식인들로 하여금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있는 타자의 운명에 스스로를 연대하는 ‘자발적인 봉사’의 삶을 살게 하였다. 이 점은 이화학당 선교회의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는 교훈에서도 나타나듯이 이화의 졸업생들이 펼친 모든 활동에서 나타나는데, 박에스터의 삶에서 전형적으로 살펴 볼 수 있다. 그

녀는 전술한 대로 한국 여성의사 1호로서 보구여관(保救女館)에서 처음으로 개복수술(開腹手術)을 집도하여 귀신의 재주를 가졌다는 평판을 지닌 전문인이었으나, 평안남북도와 황해도 일대의 각 촌락을 순회하면서 가난한 농촌 사람들을 무료로 진료하며 섬겼다. 미국에서 귀국한 후 10년 동안 매년 5-6천여 명의 환자를 돌보는 한편 위생학에 대한 순회강연을 열고 농촌 사람들에게 공중위생을 역설하는 등 과중한 활동을 하다가 1910년 4월 34세의 젊은 나이로 타계했다. 한국 기독교여성사에서 이러한 박에스터의 의의는 그녀가 단순히 여성의사 제1호였다는 점에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전문성을 ‘사회적 약자’를 섬기는 도구로 선택한 기독교 여성 지식인의 역할 모델이 되었던 것으로, 이화의 졸업생 뿐만 아니라 초기 기독교 여성 지식인의 삶의 하나의 전형을 보여 준다 하겠다.

2) 기독교 여성과 민족 독립 운동

민족의 독립과 자존을 주장하는 민족주의와 젠더(gender)의 문제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남녀 양성 평등의 실현은 독립 국가의 영위와는 구분되는 고유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봉건적 사회 구조를 변혁시키지 못 한 채 식민지 지배를 받게 된 조선의 경우, 독립 운동의 과정은 곧 전통적인 봉건적 계급의식 타파 및 남녀평등의 실현 등의 근대 변혁 운동으로서의 의미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었다. 따라서 한국의 근대 여성 운동은 독립 운동의 과정과 상호 긴밀하게 연결되어 진행되었다. 이 점은 기독교 여성 운동의 경우에도 예외일 수는 없었다. 근대 기독교 여성들의 주체성의 자각은 필연적으로 그들의 민족적 주체성의 자각에 이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 대해 스스로를 연대하는 삶을 지향했던 그녀들의 ‘자발적 봉사’의 지향성은 국제 관계 속의 최약자인 식민지 조국의 운명에 자신을 연대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강대국의 패권주의 속에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를 추구해 가려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당시 조선 사회의 역사 현실과 쉽게 오버랩 될 수 있었다. 기독교 여성들은 모세와 느헤미야 등 이스라엘 민족의 예언자적 지도자의 생애에 고무되었고, 스스로가 에스더나 미리암과 같은 민족의 어머니가 되고자 기도했다. 성진에 있었던 보신여학교 등 많은 미션스쿨의 여학생들이 자체적으로 ‘우리 나라를 찾아주소서’라는 제목을 걸고 구국기도회를 조직했다. 이화에서도 1905년 을사보호조약 이후 오후 3시에 나라를 위한 기도회를 일제히 실시했고, 이것이 발전하여 ‘다락방 기도회’가 되었다. 기전여고에서도 “공주기도회”가 교사와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나 신앙과 민족 운동이 결합된 여성 운동으로 전개되고 있었다.

또한 평양 지방에서도 송의여학교의 교원인 황애덕과 이효덕, 송현여학교 교원인 김경희 등이 모여 “우리는 학생들에게 국가 의식과 민족정신을 고양시키는 특수한 교육 방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두뇌가 명석하고 애국심을 품은 학생들을 선별해 특수 지도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여, 박현숙, 황신덕, 채광덕, 이마대 등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송죽 비밀결사대를 조직하였다. 이들은 매달 30전의 회비를 모아 애국지사의 가족을 돕거나 해외 밀사의 여비와 체류비를 대고, 부인들을 상대로 한 애국계몽운동을 전개했다.

신앙과 민족 운동이 결합된 근대 기독교 여성 운동의 최고봉의 하나는 3.1독립운동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민족의 역사에 대한 책임감을 자각하고 독자적인 조직 활동을 전개할 정도로 성숙된 기독교 여성들에게 3.1독립운동은 그들의 구국 의지를 외재화할 수 있는 절호의 계기로 인식되었다. 3월 3일 개성에서 일어난 만세시위는 권애라, 어윤희 등에 의해 호수둔여학교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천안

에서는 3월 20일 장날에 양대여숙의 교사와 학생들에 의해 운동이 주도되었고, 또 ‘한국의 잔다르크’라 불리우는 유관순의 장렬한 순국이 있었다. 목포의 시위는 기독교인 여성 4명이 맨 먼저 태극기를 흔들며 만세를 부른 데서 비롯되었다. 대구의 명신, 전주의 기전, 광주의 수피아, 함흥의 영신, 원산의 루씨여학교 등 전국 각지의 기독교 여학교에서도 여교사와 학생을 중심으로 만세 운동이 전개되었다. 3.1 독립운동에는 전국적으로 약 1만 명의 여학생이 참가하였고, 이 중 체포·기소된 여성은 587명, 3심에서 유죄 판결은 받은 자는 129명이었는데, 이들 중 70%가 기독교 여성이었다.

이렇게 기독교 신앙과 여성으로서의 자각 그리고 민족의 일원으로서의 자각이 불가분하게 연결된 기독교 여성들의 민족 독립 운동에의 투신을 김마리아를 통해 보다 면밀히 살펴 볼 수 있다.

‘한국 사람이 세운 한국 최초의 교회’였던 솔래 교회를 1885년에 세운 장본인의 한 사람인 김운방을 아버지로 한 김마리아는 정신여학교를 거쳐 1915년 동경의 일본 여자학원(현 동경여자대학교) 영문과에 입학하였다.¹⁾ 여기서 김마리아는 한국 유학생계 특히 여자유학생계에서 뜨거운 조국애와 유능한 지도력으로 그 역량을 인정받게 된다. 그녀는 동경여자 유학생회의 2대 회장이 되었고 한국 여성계를 계몽 개발시키기 위해 『여성계』를 간행했다. 그녀는 이 잡지에 「여성교육론」을 기고하여 여성 존중에 기초한 교육을 통해 여성을 봉건적인 질곡으로부터 해방시킬 것을 역설하기도 했다. 동시에 그녀는 이광수, 김도연, 백관수, 서춘, 최팔용 등과 함께 동경 유학생들에 의해 이루어진 2.8 독립 운동에 깊이 관여하였다. 그녀는 2.8독립선언서를 조선에 전하여 독립 운동을 촉구할 목적으로 목전에 둔 일본여자학원의 졸업을 포기하고 귀국했다. 김마리아는 손병희, 이종린 등 천도교 관계자들을 만나 독립운동을 촉구하는 한편, 독립운동에는 여성계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기독교 학교 졸업생들을 중심으로 여성들을 조직했다. 이 일로 3월 5일 보안법위반의 혐의로 체포되어 평양 감옥에 투옥되어 6개월간 취조를 받았다. 투옥생활을 후일 김마리아는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방에는 이미 9인의 부인이 있었다. 그 중 몇 사람은 젊은 사람들이었다. 방은 겨우 20척 사방, 환기는 천정에 뚫린 조그마한 구멍을 통하게 되었다. 방바닥은 얼음같이 차고 식사는 사람으로서는 먹을 수 없는 것을 주고, 자려고 해도 잘 수가 없어 종야(終夜) 기도로 지내었다. 이렇게 2개월 동안 낮에는 무릎을 꿇고 밤에만 자리에 눕게 하였다. 옷이 불충분한데다가 식사까지 좋지 못 한데 매일 매일 고문을 받았다. 그들은 다시 다음과 같이 취조하였다. “그대는 언제부터 독립에 대한 생각을 가졌는가” “합병할 때부터 ...” “그대는 그 생각을 방정(方正)한 생각이라고 생각하는가” “정의의 길이라고 생각한다” “만일 그대가 무죄 무죄방면되면 다시 이 운동을 할 것인가” “그렇다”.

이렇게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는 김마리아에게 일제는 혹독한 고문을 가했고 여기에서 그녀는 상

1) 김마리아의 가족사도 그녀를 이해하는데 참조할 만 하다. 큰 고모 김구례는 저명한 민족 지도자인 우사 김규식의 부인이며 둘째 고모 김순애는 3.1운동 당시 활약한 신한청년당의 당수인 서병호의 부인이고 셋째 고모 김필례는 광주 수피아 여교와 정신여교 교장을 역임하고 YMCA지도자로도 활약한 여성 교육자였으며 큰 언니 김함라는 ‘무궁화 사건’으로 유명한 신학 박사 남궁혁의 부인이었다. 이러한 그녀의 가족사 자체가 한국의 초기 개신교가 얼마나 민족의 불우한 운명에 책임감을 느끼고 연대했는가를 잘 입증해 주는 사례라 하겠다.

악골 충농증과 귀뒤뼈 속에 고름이 생기는 ‘메스토이’라는 평생의 지병을 얻게 되었다. 결국 재판을 받을 수 없을 만큼 병이 악화된 김마리아는 5개월만에 병보석으로 석방되었다.

석방된 김마리아는 몸을 추스를 사이도 없이 3.1운동 당시 조직되어 있었던 여성 독립 단체들을 재정비하는 일에 나섰다. 그녀는 협성 애국부인회, 대조선 독립부인회를 하나로 통합하여 1919년 9월 19일 유명한 ‘대한민국애국부인회’를 탄생시켰다. 독립운동을 통해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 여성들도 의무를 다할 것을 강령으로 하는 대한민국애국부인회는 전국 지부를 갖추고 백수명의 회원을 확보했다. 그리고 임시정부의 독립전쟁 준비 체제를 후원하기 위해 6,000여원의 독립 자금을 송달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했다. 그러나 그 해 11월 중순 오현주의 밀고로 전국에서 52명이 일제히 검거되었다. 석방 후 6개월만의 재투옥이었다. 김마리아는 “모든 일은 내가 한 것이니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른다. 내 나라를 내가 찾겠다는데 너희들은 왜 야단이나? 다 이상 말할 수 없다”고 하며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지는 태도로 심문에 임했다. 일제는 이러한 그녀에게 들 것에 들려서 겨우 재판에 출석할 수 있을 정도로 모진 고문을 가했다. 그리고 1920년 5월 심신이 만신창이 된 그녀를 다시 병보석으로 석방시켰다.

김마리아의 존재가 당시의 독립 운동 대열에서 어떠한 위상을 가졌는가는 상해 임시정부가 윤응범을 파견하여 그녀를 조선에서 탈출시킨 것으로부터도 잘 알 수 있다. 또한 임시정부는 김마리아를 비롯한 여성들의 조국 독립을 위한 헌신을 크게 평가하여 여성의 동등권을 임시정부 헌법으로 규정하였다. 3.1운동에서 보여준 한국 여성들의 헌신은 한국 사회에 성숙한 정치적 주체로서의 여성의 존재를 뚜렷이 부각시킨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여성이 자신을 역사의 주체로서 자각하고 그 책임을 감당한 이상 한국 사회는 더 이상 여성들에게 전통적인 차별적 위치를 강요할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

한편 상해로 망명한 후 건강을 추스린 김마리아는 상해의 여자 유학생들을 집결하여 ‘대한여자청년회’를 조직했다. 그러나 임시정부 내에서 ‘개조파’와 ‘창조파’간의 노선 차이가 생겨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소집된 국민대표회의가 결렬되어 임시정부 요원들이 각자 자기의 활동 지역으로 떠나게 되자 김마리아도 1923년 미국 유학의 길에 올랐다. 이후 1932년 귀국할 때까지 그녀는 팍 대학(Park University)에서 문학사를 그리고 1929년에는 콜럼비아대학에서 교육행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도 그녀의 투병 생활이 항상 어깨를 나란히 했다. 메스토이 병으로 인해 늘 안개 낀 듯이 머리가 뽕뽕거리고 아팠기 때문에 수술까지 받았으나 완쾌되지 못 했던 것이다. 그러나 김마리아는 자신을 극한까지 밀어붙이며 앞으로 나갔다. 1928년 뉴욕의 한국인들이 모여 『3.1신보』를 발간하며 동지회를 조직하여 독립 운동을 전개했으나 여성들만을 배제하자, 뉴욕에 있는 뜻있는 여성들을 결집하여 근화회(槿花會)를 조직했던 것이다. 단결과 실력 배양 그리고 외교를 통한 독립 지원을 목적으로 한 근화회의 회장으로서 김마리아는 다른 남성 독립 운동 단체들과 연대하여 만주에 있는 조선인들의 권익을 옹호하는 ‘뉴욕재만동포옹호회’ 등의 활동을 전개했다. 이 시기의 김마리아에게서 또 하나 특이한 점은 그녀가 김마리아라는 외국식 세례명을 극복하고 자신의 이름을 ‘김근포(金槿圃)’ 즉 무궁화밭이라는 순수한 한국명으로 표기했다는 점이다. 서구 문명의 중심국가 중의 하나였던 미국생활 속에서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식민지 피압박국 조선인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더욱 가열차게 긍정해 갔던 것이다. 이 점은 많은 기독교계 지식인들이 일본에 대해서는 선명한 민족적 정체성을 가지면서도 미국과 자신을 무의식중에 동일시하는 우를 범했던 점과는 크게 구별된다고 하겠다.

1932년 김마리아는 9년의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귀국했다. 그러나 귀국의 기쁨도 잠시뿐이었다. 일

본 경찰은 그녀에게 5일 이내에 서울을 떠날 것과 성경 이외에는 어떠한 과목도 교수해서는 안 된다는 제재를 가했다. 결국 함경남도 원산의 마르다 월슨신학교에 자리를 잡았으나, 중일전쟁의 암운이 짙어지자 일제는 그녀에게 학교 안에서만 생활해야 하고 교문 밖을 나갈 때에는 반듯이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는 ‘주거제한령’을 내렸다. 결국 과로와 정신적인 압박 때문에 지병이 재발하여 상악골 수술을 세 번이나 받아야 했다. 그러나 전쟁으로 생필품까지도 부족한 가운데 약품을 구하지 못 해 그녀의 병은 극심한 신경 쇠약으로 이어졌고 끝내 1944년 3월 타계했다. 그녀의 삶은 ‘여성의 인간화’와 ‘민족의 독립’이라는 양자를 기독교 신앙을 축으로 하여 추구해 갔던 많은 한국의 기독교 여성 독립 운동가들의 불꽃같이 치열했던 삶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5. 결론을 대신하여

이상에서 1945년 해방 이전까지의 한국 역사 속에서 기독교가 여성의 해방과 변혁이라는 과제와 어떻게 교착하면서 전개되어 왔는지를 검토해 보았다.

여성들은 기독교를 통해 모든 권위를 상대화시키는 절대자를 만나고 신과의 직접적인 관계 속에서 스스로를 재정립하게 되었다. 남성과 동등하게 신의 형성대로 지음받은 자신들의 인간적인 권위와 자율성을 회복한 것이다. 이렇게 자기를 자율적인 존재로 재정립한 여성들은 교회라는 해방 공동체를 거점으로 여성들만의 자발적인 합목적적 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해 가면서 스스로의 역량을 확대해 갔다. 동시에 그들의 새로운 자아 정체성과 해방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지탱하게 하는 신앙적·사상적 거점인 성서에 대한 해석학적 통찰력을 자각해 갔다.

한편 기독교계의 사립학교를 통해 실시된 여성 교육은 여성에게 사회의 구성인으로서 자립할 수 있는 전문적 지식을 확보해 가게 했다. 이렇게 태동된 기독교적 여성 전문인을 중심으로 한국의 근대여성지식인층이 형성되었던 것이다. 여성들의 사회적 각성과 자립은 필연적으로 그들에게 민족적 정체성을 자각하게 했다. 기독교 여성들은 식민지 지배하에 있는 조국의 운명에 자신들을 연대하여 민족의 독립 운동에도 헌신했던 것이다. 해방 직전까지 이어진 기독교 여성들의 독립 운동은 사회주의 계열의 여성독립운동과 어깨를 나란히 한 민족주의 계열의 여성 독립 운동의 주축이 되었다.

이러한 여성들의 자아 각성과 자기 확대의 역사의 맨 밑바닥에서 끊임없이 맥박치며 그 전 과정을 이끌어 가는 영성이 있었다. 그 하나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복종하라’는 것이었다. 기독교사에서 이 영성은 기존의 권위에 저항하는 모든 이반 집단들을 위한 지속적인 지주가 되어 왔는데, 이 점은 초기 한국 기독교 여성들에게도 예외가 아니었다. 초기 한국 기독교 여성들은 오직 절대자에게만 복종함으로써 그들을 억압하는 모든 인간적인 규범과 제도 그리고 이데올로기로부터 자신을 해방하고 그들의 사회적 자아를 확충해 갔던 것이다.

두 번째로는 ‘사회적 약자’에게 자신을 연대하고 나누는 ‘하향적 봉사’의 영성이었다. 여성들은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전문적 지식을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 남용하지 않고 다른 여성들과 약자를 섬기는데 선용하는 삶을 살았다. 이러한 영성이 없었더라면 한국 여성이 오늘날 누리는 것 같은 여성의 고등교육의 권리와 정치적 권리가 100여년이라는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 없었을 것이다.

사실 이 두 영성은 ‘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기독교의 골자를 살리는 여성들의 신앙에서 자연스럽게 용솨음쳐 나오는 영성이었다. 물론 한국 기독교 여성사에서 이러한 영성이 언제나 튼실하게 유지되어 온 것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역사 속에서 때로는 심하게 오염되기도 했고 퇴색되기도 했다. 그러나 기독교 정신의 골자를 살아내려는 참 신앙이 맥박치는 곳에서는 언제나 다시 용솨음쳐 나와 여성들을 정화시키고 그 안에서 잠자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일깨워 내며 ‘여성의 인간화’를 추구해 가게 했다.

5

여성의 눈으로 보는 성서의 하나님

이영미 | 한신대학교 교수

1. 질문하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부르고, 또 누구인가를 상상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을 개념화하고 시각화한다. 엘리사벳 A. 존슨은 <하느님의 백한번 째 이름>을 말하는데, 내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인지 불러보자.

하나님을 이해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인격화하고, 하나님의 행동 역시 인간의 사회적 역할에 상응하여 서술해왔다. 성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인격화하고 있는가?

가부장적 사회는 인간은 남자와 여자로 구별하고 이를 바탕으로 획일적인 성역할을 그 구성원들에게 강요해왔다. 사회적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과 위계질서는 인격화된 하나님의 역할을 묘사하는데 고스란히 반영되곤 하는데, 남성이 중심을 이루는 가부장 사회에서 하나님은 위계질서 상 우위의 위치를 차지하는 남성적 신으로 등장한다. 하나님은 남성인가? 여성인가?

하나님을 인격화시키지 않고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하나님은 무엇인가? 누구인가?

2. 성서의 하나님이해 들여다보기

1) 하나님,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3:13-14)

13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나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14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에흐예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2) 야훼와 아세라(구약성서에 나타난 여신들)

(1) 구약에 언급된 여신들: 아스다롯과 아세라

아스다롯, 이쉬타르, 아세라는 구약에 나오는 여신의 이름들이다. 시돈의 여신 아스다롯은 구약에서 14번 언급된다(신 1:4; 수 9:10; 12:4; 13:2, 31; 삿 2:13; 10:6; 삼상 7:3, 4; 12:10; 13:10; 왕상 11:5; 왕

상 11:33; 왕하 23:13). 아스다룻은 가나안의 저녁별의 여신이다(렘 44:19). 렘 44:19아세라는 구약에서 40번 언급되는데(출 34:13; 신 7:5; 12:3; 16:21; 삿 16:21; 3:7; 6:25, 26, 28, 30; 왕상 14:15, 23; 15:13; 16:33; 18:19; 왕하 13:6; 17:10, 16; 18:4; 21:3, 7; 23:4, 6, 7, 14, 15; 대하 14:3; 15:16; 17:6; 19:3; 24:18; 31:1; 33:3, 19; 34:3; 34:4, 7; 사 17:8; 27:9; 렘 17:2; 미 5:14), 여신 자체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목상으로 된 상이나 숲(겔 20:28)을 뜻하기도 한다. 우가릿에서 발견된 바알신화에서 아세라는 최고의 신 엘의 배우자이다.

(2) 케르벳 엘-콤의 “야훼와 그의 아세라”

고대 이스라엘 왕정시대 유다의 남쪽 요새였던 쿤탈랏 아즈루드에서 대형 돌그릇과 석고벽, 그리고 저장용 항아리 등이 발견되었다. 이 중 항아리에 고대 히브리어로 기록된 된 축복문에 축복의 주체가 “야훼와 그의 아세라”로 적혀있다. 기원전 8세기 가나안 지역에서 아세라 여신이 숭배되었다는 증거이며 이 축복문은 아세라가 야훼의 배우자로 여겨졌음을 보여준다.

(3) 신명기 종교개혁과 혼합종교비판(예레미야 44:15-26)

15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16 네가 여호와와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17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 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18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폐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19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20 예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 곧 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일러 이르되 21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 22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23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24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25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즉 너희 서원을 성취하며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26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

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와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3) 유일하신 하나님과 여성 은유

(1) 한분이신 하나님(신명기 6:4)

이스라엘아 들으라, 야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한분이시다.

(2) 하나님과 아내 이스라엘(호세아 2:14-20)

14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15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16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17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18 그 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19 내가 네게 장가 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 들며 20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 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3) 하나님과 아내 시온(이사야 62:1-5)

1 나는 시온의 의가 빛 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 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2 이방 나라들이 네 공의를, 못왕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와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3 너는 또 여호와와 손의 아름다운 관, 네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4 다시는 너를 버림 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네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5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4) 하나님과 여성지혜 (잠언 8장)

22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23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24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25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26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27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28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 있게 하시며 29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

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30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31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4) 하나님의 속성: 레헴과 헤세드

3. 대답하기:

1) 한국교회의 하나님 이해

한국교회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기독교 신앙전통과 한국 문화는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묘사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한국교회의 하나님 이해는 얼마나 성서에 근거하고 있는가? 토의해보자

2)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나의 이해는 무엇에 근거하고 있는가?

6

한국사회 안에서의 여성

이숙진 | 성공회대학교 연구교수

이 강좌에서는 두 가지 주제를 다룬다. 첫째, 보수진영에서 여성대통령을 선취한 한국사회에서의 여성정치세력화에 관하여 논의한다. 둘째, 후기 산업화시대를 살아가는 한국 여성의 주체문제를 살펴본다. 특히 여성성의 자원화를 목적으로 행해지는 자기계발의 테크놀로지를 통해 구성되는 주체의 성격을 논의한다.

1. 여성대통령 시대의 여성정치세력화

여성인권을 가늠할 수 있는 성별격차지수 순위 135개국 중 108위, OECD 국가중 유리천장 지수(Glass Ceiling Index) 최하위¹⁾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에서 여성대통령이 탄생하였다. 이번 선거 결과를 두고 상반된 해석이 등장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우리사회가 ‘여성’대통령을 배출할 정도로 여권이 향상되었다고 보면서 역할모델론을 내세워 여성의 삶의 질이 더욱 고양될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최고 권력자 1인이 생물학적으로 여성이라고 해서 여성의 삶이 고양될 것이라는 믿음은 여권확장에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후자의 입장에 의하면 여성과소대표나 여성인권이 보장되지 않은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 최고지도자의 등장은 양성평등의 조건이 갖춰진 듯한 착시현상을 불러일으켜 오히려 여성대중에게 자괴감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성대통령의 등장으로 마침내 한국 사회는 성평등의 시대를 맞이할 것인가? 성평등 시대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번 정부는 여성 친화적 정부가 될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긍정 혹은 부정과 같은 명확한 답을 제시하기는 힘들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새로 선출된 여성 대통령이 과연 양성평등 사회를 향한 확고한 의지와 철학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 때문이다. 대선 기간 중 박근혜 후보(이하 호칭생략)는 ‘여성’이란 기호를

1) 2013년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해 영국 경제 전문지 이코노미스트가 공개한 OECD 국가들의 유리천장 지수(Glass Ceiling Index)를 보면 한국은 26개 국가 중 꼴찌이다. 최고점이 뉴질랜드(약 89점)이고 50점 이하의 나라는 한국(15점)과 일본(25위, 약 35점) 두 나라 뿐이다. 이코노미스트지는 여성의 고학력(대학 이상) 비율(23%), 여성의 노동 참여 비율(23%), 여남의 임금 격차(23%), 여성의 고위직 비율(23%), 평균 임금에서 보육 비용(8%)를 분석해 지수로 만들었다고 밝히고 있다. <http://www.economist.com/blogs/graphicdetail/2013/03/daily-chart-3>

매우 자주 활용하였다. 가령 “여성 대통령이 탄생하면 건국 이후 가장 큰 변화이자 쇄신”²⁾이며, “여성 리더십은 세계적인 추세이며, 지금은 어머니와 같은 희생과 강한 여성리더십이 필요한 때”³⁾이고, “여성 대통령 시대로 정치의 패러다임을 바꾸자”고 주장했다. 당시 박근혜는 인터뷰에서 ‘유리천장론’도 언급했다. “아직도 우리 여성들에겐 눈에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이 남아 있는데 그것을 깰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바로 이번 대선”⁴⁾이라며 여성대통령의 등장이 보이지 않는 성차별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임을 강조하였다. 심지어 그가 추진하는 복지와 통합 정책의 핵심을 “열 자식 안 굶기려는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표현으로 여성과의 친화성을 적극적 부각시켰다. 언제부터 이러한 여성관이 형성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18대 대선 이전의 그의 삶의 행보에서는 여성으로서의 자의식이나 여성주의에 크게 동조한 흔적을 찾기가 매우 어렵다. 여성주의자라기보다는 오히려 ‘권위주의적 가부장 국가의 대리인’에 가까웠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국민의 정부’에서 시작한 ‘성 주류화 전략’으로 인해 가시적 차원의 차별은 조금씩 개선되고 있으나 여성의 사회활동을 제한하는 유리천장과 유리절벽이 여전히 공고하다는 데 있다. 직종에서의 성별분리와 여성의 비정규직화를 해결하는 것과 같은 실질적 평등을 구현할 획기적 정책이 실행되지 않고서는, 여성 대통령 시대가 되었다고 해서 성차별적 구조를 극복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획기적인 성평등의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여성정치세력화가 절실히 요청된다.

박근혜 후보가 ‘준비된 여성대통령’ 슬로건을 내세웠을 때, 여성계를 비롯한 진보진영에서는 그의 여성대표성에 회의적이었다. 무엇보다도 그는 사회적 약자인 여성의 경험이 없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선기간 중에 박근혜의 여성대표성을 두고 벌어진 sex/gender 논쟁은 누가 옳은지 그 윤리적 판단과는 별개로, 본인 스스로가 사회적 약자인 여성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와는 별개로, 여성정치담론의 공간을 확장시켰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만약 새누리당의 대선후보가 남성이었다면 여성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상상해 보자. MB정권은 참여정부가 기획한 젠더레짐이 작동되고 국가 페미니즘이 정착되려는 단계에서 정권을 이어받았음에도 양성평등 정책을 대폭 축소시킴으로써 여성 인권 최하위국의 불명예를 얻게 되었다. 성평등 정책의 후퇴는 MB정부가 17대 대선과정에서 여성진영에 빚진 것이 없었던 점에 기인하는 측면도 있다. 반면 박근혜정부는 가부장적 보수정당에 기반하고 있지만 ‘준비된 여성’대통령이란 슬로건 아래 다양한 여성정책을 공약했기에 여성진영의 양성평등적 정책 요구를 결코 무시하지도 무시할 수도 없다. 그렇다고 해서 부재했던 여성의식이 갑자기 고양되어 여성인재를 등용하고 획기적인 여성정책을 앞서서 입안할 수는 없을 것이다.

박근혜정부는 인수위 시절부터 여성진영의 거센 도전을 받았다. 인적 구성에서 우선 문제였다. 인수위의 경우 겨우 2명이 여성위원으로 배정되었고, 첫 내각에서도 장관급 24명 중 여성은 단 2명이었다.⁵⁾ 게다가

2) 세계여성경제포럼 축사, 2012년 10월18일

3) 새누리 중앙선대위 여성본부 출범식

4) 여성신문,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 인터뷰- “여성 대통령 나오면 여성금기도 사라진다”」, 『여성신문』 2012.12.07

5) 26명의 인수위원 중 단 2명의 여성위원, 전문위원과 실무위원을 포함한 총79명의 위원 중 6명(7.6%)만이 여성이다. 참여정부때는 위원 16명에 여성은 3명이었다. 이명박 정권 초기 내각은 여성 비율 13%였고, 노무현 정부는 21%였다. 이숙진 『여성, 날개를 달다: 참여정부 정책총서 사회정책면-여성보육』 2012.

가 향후 5년간 국정 운영 방향이 농축된 취임사에서는 ‘국민’이 57번, ‘행복’이 20번 언급된 것에 비해 ‘여성’은 단 한차례 언급되었다. 이러한 데이터를 근거로 여성진영에서는 박근혜정부가 여성현안 해결이나 양성평등에 의지가 없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하였다.⁶⁾ 그러자 몇 주후, 차관급에 해당하는 청와대 비서관에 6명의 여성을 채용하고, 참여정부가 기획하고 추진했던 여성정책담당관제⁷⁾를 부활하는 등 전문인력의 성비 조정을 시도하였다. 이는 여성진영에 의한 강력한 비판과 대안 제시에 따른 열매라고 할 수 있다.

박근혜대통령의 대선 이전 여성관련 언행과 인수위 및 첫 내각에서 기용한 인물들은 그의 여성정치철학의 후진성을 짐작하게 하는 자료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관적인 전망을 할 만한 근거가 있는데, 그것은 박근혜정부가 여성대통령이라는 기호를 선취/전유하는 대가로 수많은 (양)성평등 공약을 하였다는 점이다. 선거 과정에서 그가 약속한 여성의 다양한 권리는 집권 기간 내내 실천해야 할 족쇄가 되어 여성진영과의 창조적 갈등관계를 형성할 수밖에 없다.

물론 모든 공약이 다 실행될 수는 없을 것이다.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제공’과 같은 정책처럼, 형식만 있고 내용은 비정규직이어서 일자리의 질이 매우 낮을 수도 있으며, 실현방안이 모호한 정책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큰 틀에서는 여성친화적 정책으로 방향을 돌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는 특정 집단에 적대적이거나 편향적인 실체가 아니지만, 성별화된 사회의 정책은 객관적이라고 할 수 없다. 여성진영의 부단한 요구로 인해 여성친화적 정책을 쓸 수밖에 없듯이 국가도 정책도 어느 정도 합의된 압력에 반응한다는 점에서 성 중립적이지 않다는 말이다. 여성의 참여와 세력화는 여성의 생활을 변화시키는 일차적 수단이다. 국내외에서 여성할당제, 적극적 조치, 채용목표제 등의 제도가 나온 것은 각 영역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함이었고, 여성들은 이러한 제도를 통하여 비로소 그 영역에 진출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의 하나인 ‘여성 경제활동 확대 및 양성평등 확산’ 정책에는 4급 이상 여성관리자 임용 목표 15% 달성과 미래 여성인재 10만명 양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큰 틀에서 보면 참여정부의 공직 내 양성 평등채용목표제⁸⁾의 정신을 이어받은 것이다.

보육복지정책 역시 여성정책과 마찬가지로 참여정부의 정책철학을 이어받고 있다. 대표적인 것은 ‘0-5세 보육 및 육아교육 국가 완전책임제 실현’이다. 박근혜 정부의 무상보육지원은 그간 가족이 전담하던 보육을 국가가 담당하는 매우 중요한 정책이다. 이 정책에 의하면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유아연령과 기관 이용여부에 따라 차등적으로 매달 국가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여성학자 조한혜정의 지적처럼 이 정책은 ‘유아교육의 획일화’나 차등지원의 한계를 지니고 있

6) 한국여성단체연합은 17일 인수위에서 발표된 장관인선 이후 논평

7) 여성정책담당관제도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사무관급 담당관이 부처별 여성정책을 발굴하고 집행하는 업무를 맡던 제도로, 성평등 정책을 진일보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8) 참여정부의 여성관리직 공무원 확대계획은 2002 여성공무원 인사관리지침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이 계획에 의거해서 2006년까지 5급 이상 여성공무원 10%임용을 목표로 하였다. 여성 대표성 제고의 대표적인 정책은 여교수채용목표제로서 2002년 9.1%였던 국공립대 여교수비율이 2005년에는 10.7%까지 증가하였다. 이숙진, 『여성, 날개를 달다』 한국미래발전연구원 편, 2012. 79-83쪽

지만, 공적 자원을 풍부하게 함으로써 공생의 감각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다. 유아교육이 보편복지의 원리에 따라 충실하게 실행될 수 있다면 우리 사회는 성숙한 사회로 진입할 수 있을 것이다.

신자유주의 경제와 철학을 공유하는 박근혜 정부에서 국가완전책임제 보육정책을 기획하고 실행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그런데 어떻게 보육복지의 입안이 가능했을까? 정권획득과 유지를 위하여 복지 대중의 욕망을 간과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여성정책도 마찬가지이다. 여성유권자의 수는 남성에 비해 많다. 박근혜정부는 정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여성유권자들이 원하는 것을 정책에 반영하려 할 것이다. 여성대통령 시대를 맞이하여 확장된 여성정치 공간에 여성진영은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로 개입할 것인가?

이 강좌에서는 바로 이러한 여성정치 세력화의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2. 자기계발의 시대, 한국 여성주체의 특성

2009년 통계청이 발표한 “생활시간 활용조사표”에 따르면, 여성은 남성에 비해 자기계발을 하기 위해 두배 이상의 시간을 투자한다. 취업과 자격증 획득과 관련한 자기계발 비율도 여성이 두 배 이상, 컴퓨터 관련 학습비율도 여성이 4배 이상이 더 높다.⁹⁾

왜 여성은 이토록 자기계발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는 것인가? 일차적인 원인은 노동시장 내부에서 찾을 수 있다. IMF 이후 심화된 구조조정의 여파로 고용불안과 극심한 취업난은 남녀노소 모두의 당면문제가 되었다. 그러나 노동시장 안팎에서 작동하는 성차별적 장치로 인하여 여성들은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 여성노동자의 비정규직화 급증현상은 노동시장의 젠더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¹⁰⁾ 노동시장에 온존하고 있는 구조적인 성적 불평등은 단기간에 극복될 수 없기에, 여성들은 불안한 현재와 미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자기계발에 더 몰두하고 있는 듯하다.

여성의 자기계발 붐은 노동시장 외부에서 특히 가족제도의 변동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출산을 급락과 이혼율의 급증, 점점 높아지는 초혼연령, 그리고 여성의 비혼비율의 급증¹¹⁾으로 인해 여성들은 가부장적 가족의 구속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이 사는 기간이 갈수록 길어지고 있다. 이러한 결혼과 가족의 변동은 출산에 귀속되어 있던 성(性)이 보다 자유로워지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성이 출산에서 자유로워진다면 기존의 섹슈얼리티 체계는 젠더 체계와 분리되어 독자적 영역을 가지게 된다. 울리히 벡이나 기든스가 진단했듯이, 물적 심적으로 확실한 보호막 역할을 해왔던 가족제

9) 통계청 <http://www.kostat.go.kr> 2009 생활시간조사표 참조.

10)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보면 취업자중 여성비율은 1996년의 38.6%에서 2008년에는 42.4%로 증가하고 있다. 노동시장에서 여성들의 양극화가 점차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전문관리직의 경우는 11.7% (1996년)에서 19.8%(2008년)로 8%증가했으나 비정규직의 비율은 18.5%(여성전문관리직)와 66.3% (여성미숙련노동자군)으로 압도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

11) 2010년에 발표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결혼과 출산율보고서」에 따르면 25~29세 여성의 비혼율은 1975년 11.8%에서 2005년 59.1%로 크게 높아졌다. 30대 초반(30~34세) 역시 2.1%에서 19%로 높아졌다. 그 결과 평균 초혼 연령도 늦어져 81년에 여성 23.2세였던 것이 2008년에는 28.3세로 다섯 살 많아졌다. <http://www.kihasa.re.kr/> 《중앙일보》2010. 7. 29 참고.

도가 느슨해지는 후기산업화 사회에서의 개인들은 사랑, 친밀성, 섹슈얼리티에 대해 더욱 집착하게 된다.¹²⁾ 이러한 추세가 심화될수록 섹슈얼리티가 발현되는 ‘몸’은 ‘인적 자본’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이처럼 노동시장 안팎에서 남성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 있는 여성들에게 신체관리는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방편 혹은 자기계발의 동의어로 자리 잡았다. 최근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대단한 인기를 누리고 있는 자기계발서적들은 이러한 현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여성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기계발서의 핵심메시지는 ‘외모관리,’ ‘고급 소비취향함양,’ ‘전략적 결혼’으로 요약가능하다.¹³⁾ 여성들의 자기계발에의 욕구가 온갖 자격증을 구비하고 환상적인 토폴/토익 점수를 획득하는 것과 같은 화려한 스펙¹⁴⁾쌓기에 그치지 않고, ‘여성성의 자원화’를 꾀하는 방향으로 확장되는 것은 이러한 세태를 반영하고 있다. 신체관리를 통한 여성성의 자원화는 보다 나은 자기를 향한 개인들의 열망과 선택을 유도하는 신자유주의의 지배전략과 공명하면서 여성들에게 크게 어필하고 있다.

이 강좌에서는 여성성의 자원화를 목적으로 행해지는 자기계발의 테크놀로지를 통해 구성되는 한국 여성 주체의 특성에 대해 살펴본다.

12) 엘리자베스 벡, 올리히 벡, 『위험에 처한 세계와 가족의 미래』, 심영희, 한상진 옮김 (새물결, 2010); 『사랑은 지독한, 그러나 너무나 정상적인 혼란』, 강수영, 권기돈, 배은경 옮김 (새물결, 1999), 참조.

13) 남인숙, 『여자의 모든 인생은 20대에 결정된다』 (랜덤하우스, 2004). 안은영, 『여자생활백서』(해냄, 2008), 이재연, 『여자라이프사전』(책비, 2010). 이상화, 『나쁜여자백서』(머니플러스, 2009) 참조

14) 스펙은 제품설명서, 명세서로 번역되는 스펙시피케이션specification을 줄인 말이지만 최근 취업시장에서 “개인을 상품가치로 환산할 수 있는 각종 자격과 조건”의 의미로 유통되고 있다. 스펙에는 각종 자격증과 학력, 학점, 어학시험점수 뿐만 아니라 인맥, 외모, 긍정적 정서능력 등이 포함된다.

7

회의와 진행자

김선혜 |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갈등해결센터 소장

「000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 공청회」에 갔는데, 단상은 저 멀리 높이 있고 참석자는 100여 명이 넘어서인지 발표자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리지 않는다. 발표자는 획획 PT를 넘겨가면서 발표하는데도 한 시간이 넘어가자 (동원된) 참가자들은 하나 둘 자리를 떠난다. 발표가 끝나고 자유토론을 한다고는 했는데, “시간 관계상” 세 명에게서 질문과 제안을 받고 공청회가 끝났다. 공청회라기 보다는 설명하는 자리가 맞겠다.

여러 단체와 공동행사를 준비하는 회의. 몇몇 사람이 의견을 낼 때 한 사람이 계속 이른바 ‘쫓코’를 준다. “작년에 해봤는데 안됐어요.”, “그런 사람들은 안 와도 돼요.” 이런 식이다. 의견을 낼 때마다 토를 달고 자기와 다른 의견이 나오면 이런 태도를 보이니까 의견을 내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인지 다들 입을 다물고 있다. 사회자는 점잖게 의자에 등을 대고 의견을 더 내라고 한다.

당신 경험이 필요하니 회의에 참석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다른 일정을 바꿔가면서 회의에 갔다. 그런데 내가 아닌 더 전문적인 사람들에게 이미 자문을 받고 난 뒤였다. 그 회의에는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그 안건 논의를 해 온 사람들이라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끼어들 수도 빠질 수도 없이 애매한 상황이라 그냥 회의가 끝날 때까지 있었다. 시간이 아까웠다.

창립기념행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단체 운영위원회의를 했다. 야유회를 가자는 안과 최근에 자주 만났으니 간단히 기념식하고 저녁이나 먹자는 안으로 나뉘어 의견이 분분했다. 회의를 진행하던 사회자가 야유회 다녀와서 저녁 먹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팡팡팡!!! 요즘 아이들 표현을 따르자면 헐~이다. 이러려고 회의를 했다니....

사람들이 모이면 함께 의견을 모으고 결정해야하는 크고 작은 회의가 있기 마련이다. 모이는 숫자, 모임(조직)의 성격, 목적 등에 따라 회의의 형태나 내용은 다르다. 하지만 앞의 사례와 같은 경험이 누

구에게나 한 번 짚은 있다. 회의의 목표에 걸맞지 않는 형식, 사회자는 있는지 없는지 회의가 표류하게 두는 방임형 사회자, 누가 참석해야하는지 불분명한 회의, 실컷 논의하고 난 뒤 사회자 마음대로 하는 결정 하는 회의 등등.

이런 문제들은 왜 나타나는가? 회의는 시간과 장소, 안건과 회의 자료만 있으면 되는 것이라는 우리의 통념의 결과이다. 하지만 위에서 본 사례처럼 준비되지 않고, 과정이 디자인되지 않은 회의는 참가자들에게 會議 자체에 懷疑를 갖게 한다. 그러면 준비된, 과정이 디자인 된 회의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회의의 성격이 명확해야 한다.

이 회의가 구성원간 정보를 교환하는 자리인지, 문제점을 찾기 위한 것인지 혹은 문제해결책을 논의하기 위함인지 아니면 무엇인가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자리인지 명확해야 한다.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라면 모두가 한 자리에 모일 필요가 없을 수 있다.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면 참가자들의 회의 준비가 더 철저해야한다. 회의 목표에 따라 회의 진행방법이나 준비내용이 달라 질 수 있다.

회의에서 다뤄야할 안건이 무엇인지 명확해야 한다.

회의 안건은 그 안건 자체도 그 성격과 목표가 뚜렷해야 한다. 그냥 참석자들의 의견만 듣는 것인지 아니면 무엇인가를 결정해야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면 논의는 하되 결정하지 않는 회의가 되는 것이다. 안건이 명확해야 회의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회의의 참석자가 누구인지 결정해야 한다.

학교에 가보면 몇몇 교사 화장실 입구에 「학생 출입 금지」안내문이 붙어있고, 어떤 경우는 별점을 주겠다고 쓰여 있는 경우가 있다. 선생님들은 많은 학생들이 출입하면 화장실이 지저분해지고 민망하기도 해서 학생들과 함께 사용하고 싶지 않다고 한다. 학생들은? 선생님 화장실이 깨끗하니까. 그래서 일부 학생들은 출입금지 안내문을 무시하고 그 화장실을 출입한다. 「학생 출입 금지」에 누가 영향을 받는 관계자인가? 교사는 물론이지만 학생도 그 당사자다. 그러나 그 결정은 누가했는가? 대개 교사가 한다. 학생들은? 참여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규칙은 지키지 않는다. 결정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결정과정에 함께 참여해야한다.

회의의 방식을 결정해야 한다.

회의 참석자는 20명인데 회의시간은 90분이라고 할 때 한 명이 1분씩만 발언해도 20분이 소요된다. 안건이 2,3개라도 되는 경우라면 해당 안건 당 한 명씩 1분만 발언해도 회의는 끝난다. 물론 침묵하는 다수도 있고 강경한 소수도 있어 기계적으로 1분씩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산술적으로 그렇다. 안건이 단순한 의견교환 정도로 끝나도 되는 경우라면 모르지만, 의사결정을 해야 할 경우는 시간이 더 필요할 수도 있다. 회의 목적, 참석자, 안건 등에 따라 회의 진행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사전에 정해야 한다. 회의 방식만이 아니라 전체 안건의 비중과 순서에 따라 회의 시간을 배분 등 회의 과정에 대해 준비한다.

그 외 회의에 필요한 물리적 준비를 한다.

10명이 참여하는 회의라면 그에 맞는 크기의 회의실이, 장시간 진행되는 회의라면 적절한 휴식 장소와 프로그램이, 프리젠테이션이 필요하다면 해당 설비가, 큰 장소 회의라면 각종 음향시설 등이 필요하다. 물론 식사시간과 가깝다면 식사준비까지도 필요하다. 이러한 준비는 위에서 언급한 요소들을 점검하고 회의 방식이나 규모가 결정되고 난 뒤 시간이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준비해야한다. 회의 할 때 좌석배치도 고려해야한다. 통상 의전-지위에 맞는 대우도 중요하지만 회의 성격에 따라 배치도 고려해야한다.

이상의 내용을 준비하는 것 외에도 구체적으로 회의 과정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도 중요하다. 회의의 과정은 대화의 과정이기도 하다. 이 대화의 과정을 어떻게 계획하고 운영할 것인가도 회의를 준비하고 진행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회의 진행 과정은 구체적으로 진행자에게 의사소통과 의사결정 등의 방법과 기술을 요구한다.

이처럼 회의는 회의를 디자인하고 그 과정을 진행하는 것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 본래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회의가 본래의 목적에 따라 잘 이루어지고 진행되도록 하는 ‘프로세스 관리자’가 바로 퍼실리테이터이다. 즉 회의 운영을 위한 컨설턴트이면서 회의의 코디네이터이다.

진행자란¹⁾

국어사전에는 진행자를 ‘행사나 오락 프로그램 따위의 진행 과정을 주도하는 사람’이라하고 영어로는 MC(master of ceremonies)라고 써두었다. 회의 과정을 진행하고 주도하는 사람으로서 진행자를 따로 규정하지는 않고 있다. 보통 우리가 회의 진행자는 ‘의장’이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쓰는 진행자는 ‘회의를 주관하는 사람’ 혹은 ‘회의를 진행하는 사람’으로 사용한다. ‘Facilitate’는 라틴어 facilis에서 유래한 말로 쉽게 만든다는 의미이다. 진행자는 과정에서 내용 중립적인 지원으로 그룹의 활동을 더 쉽고 더 효과적으로 만들도록 도와준다. 어떤 과정인가? 다수가 의견을 모으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진행자의 역할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진행자의 기능은

1. 참가자들이 서로 듣도록 돕기

말하고 듣는 것은 그룹 활동의 핵심이다. 그러나 우리의 다른 배경, 경험, 기질과 스타일은 우리에게 혼란을 준다. 사람들의 발언을 바꿔말하고, 발언을 더 이끌기 위한 질문을 함으로써 진행자는 참가자들이 자신들을 더 명확하게 나타내도록 돕고 서로 정말 잘 듣도록 도와준다.

2. 참가자들 사이의 균형 맞추기

대부분의 그룹에서 몇몇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거의 말하지 않거나 전혀 말하지 않는데 반해 아주

1) 진행자의 기능 다섯 가지는 Cool tools for hot topics 을 참고로 재구성한 것이다.

강경하다. 때때로 사람들은 천성적으로 자기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침묵을 지킨다. 그러나 때때로 지배적인 관점에서 보기에 낮설다고 느끼거나 비판을 두려워한다. 조용한 멤버를 포용하고 다른 관점을 격려하면서 진행자는 모든 사람이 편안함을 느끼는 공간을 만든다

3. 대화의 경로를 찾고 거기에 머물도록 돕기

진행자가 없다면 그룹 토의는 대개 빛나간다. 대화는 한 사람의 관심과 아이디어에서 다른 사람의 것으로 흐른다. 이런 두서없는 이야기에 대해 진행자는 경로를 계획하고 그룹 토의를 그곳에 머물게 한다. 경기장의 나레이터처럼, 진행자는 사람들이 무엇이 일어나는지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도록 해야 한다. 주기적으로 토론을 요약-특히 동의하는 점과 동의하지 않는 지점-함으로써 진행자는 지금까지 논의가 포괄하는 범위에 대해 성원들이 알 수 있도록 돕는다.

4. 감정 상태를 알아채고 조절하기

갈등이 있는 주제는 참가자들 사이의 강한 감정을 일으킨다. 그룹은 그것들과 함께 작업하고 지켜보는 역량을 함께 키울 필요가 있다. 침착하게 듣기의 예를 보여주고 깨닫고 질문함으로써 진행자는 그룹이 갈등을 함께 다룰 때 혹 치밀어 오르는 열기를 인식하고 수용하도록 돕는다.

5. 그룹의 자신감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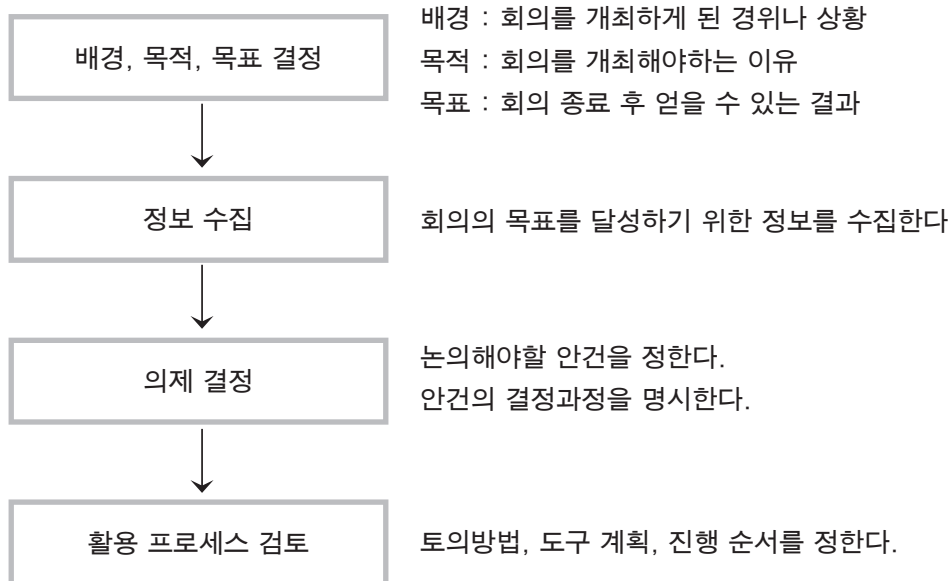
이상의 것들은 그룹이 자신감을 갖고 유지하도록 돕는다. 서로 듣는 것을 배우고 일치와 불일치 지점을 알아차리고 그를 위해 함께 일하는 것을 배울 때 그리고 편안한 표현과 감정 듣기를 배울 때 사람들은 그들이 정말 이것을 함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다.

진행의 절차와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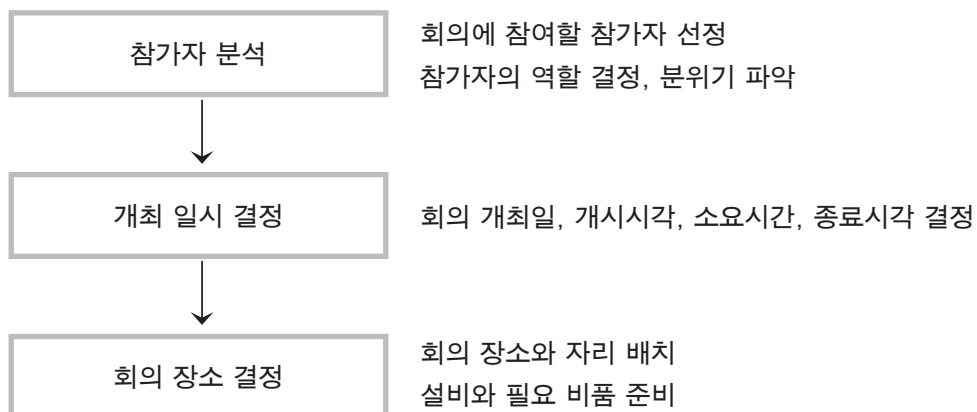
진행은 회의 과정 앞뒤의 준비와 마무리 과정까지 포함해서 준비한다. 회의를 계획하는 사전 준비 과정 / 회의 진행 과정 / 회의 마무리 및 후속 과정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시간상으로 준비과정을 구분할 수도 있지만 회의장 밖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과 회의장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로 구분할 수도 있다.

I. 사전 준비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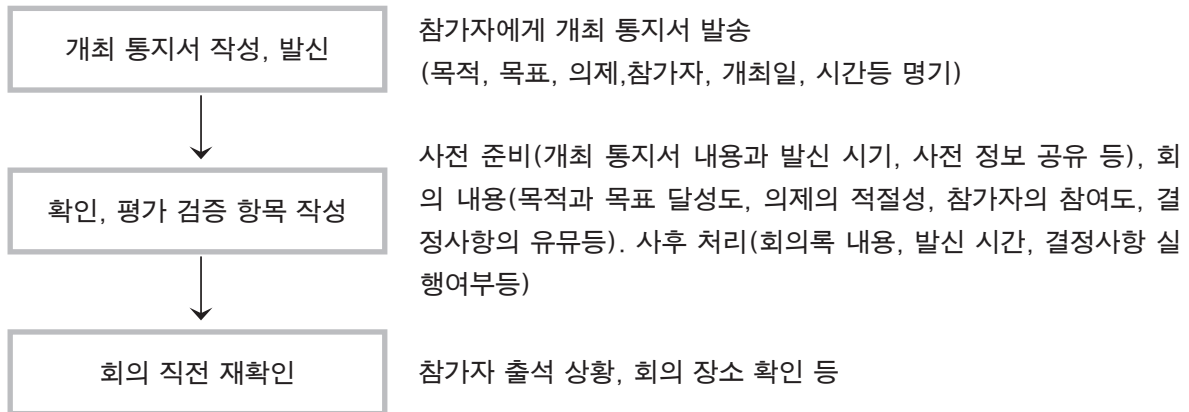
1. 회의 내용을 결정한다.



2. 회의에 필요한 자원을 파악하고 조달 계획을 세운다.



3. 회의 안내하고 참여를 독려한다.



Ⅱ. 회의 진행 과정

1. 도입단계

- 인사 및 소개
- 회의 목적 : 회의를 개최하는 이유
- 회의 배경(경과보고) : 회의 개최까지의 과정
- 회의 목표 : 회의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결과물
- 역할 소개 및 결정 : 진행자, 타임 키퍼, 서기 등
- 기대 나누기
- 의제 공유 : 추가 의제 제안 및 의제 순서 결정
- 기본 규칙 만들기 / 공유

2. 본회의

- 의제 순서에 따라 의제를 제안하고 해당 의제의 정보를 제공한다.
- 의제의 성격에 따라 입론.반론의 과정을 거치기도 하고, 의견 수렴만 하기도 한다.

3. 마무리

- 회의 논의 사항 요약 및 공유
- 결정사항 확인
- FOLLOW UP 점검
- 인사

Ⅲ. 회의 마무리 및 후속 과정

- 회의 평가
- 회의실 및 장비 뒷정리를 한다.
- 회의록을 발송한다.

의견 모으기 기법

피그만 침공 사건은, CIA의 훈련을 받은 쿠바 출신 망명인들이 카스트로 쿠바정권 전복을 위해 쿠바에 상륙했다가 대거 사살되거나 체포된 사건이다. 상륙지점과 집결지까지 넓은 넓이가 있었음에도 이런 사소한 제약 조건이 검토조차 되지 않아 무고한 목숨이 살상되었고, 이후 미국과 쿠바의 대립이 본격화되었다. 당시 피그만 침공 사건을 결정한 것은 케네디 당시 미국대통령을 포함한 케네디 행정부의 핵심적인 인물들이었다. 이 사례는 학자들은 집단사고(Group Think)로 명명하였고, 집단사고의 폐해를 꼽는 대표적 사례로 피그만 침공사건이 빠지지 않는다.

집단사고란 응집력이 높은 소규모 의사결정 집단에서 대안의 분석 및 이의 제기를 억제하고 합의를 쉽게 이루려고 하는 심리적 경향을 말한다. 즉 집단구성원들이 대안에 대한 충분한 분석 및 토론이 없이 쉽게 합의하고 그 대안이 최선이라고 믿고 합리화하려고 하는 현상을 말한다. 집단사고는 의사결정 과정에 나타나는 ‘집단착각 현상’이다. 집단사고에 빠지게 되면 조직구성원들은 새로운 정보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해 상황적응 능력이 떨어지게 된다.

나와 생각이 같은 사람들, 그룹들과 함께 하는 것은 편안하고 안락하다. 하지만 그런 편안하고 안락함이 위와 같은 결정적인 오류를 불러오기도 한다. 여럿 가운데 코끼리의 다리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통나무처럼 생겼다고 말하겠지만, 모두 코끼리 다리를 만진다면 코끼리는 통나무처럼 생긴줄 알게 된다. 어떤 경우 코끼리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겠는가? 이처럼 다양한 관점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편안하고 안전하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건설적인 비판자(Devil's advocate) 역할을 부여하는 방법도 이러한 집단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이 된다.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허용함으로써 집단사고를 예방할 수도 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모으는 방법으로 널리 알려진 브레인스토밍은 평가나 책임없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구조화된 회의 방법이다. 브레인스토밍을 원래 목적에 따라 잘 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네가지 원칙이 잘 지켜져야 한다.

(1) 브레인스토밍의 4가지 원칙

무비판 - 무책임 - 무제한 - 무소신을 보장하는 회의

판단 보류(Deferment-of-Jedgment) 기존의 개념이나 상식을 버리고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확산 기법에서 참가자는 아이디어를 내놓는 것에만 전념하고, 판단은 나중에 하면 좋다고 하는 규칙이다. 자신이 내놓은 아이디어를 놓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질문과 반론이 나온다면, 발표자는 자기 주장을 지키기 위해 하나하나의 아이디어를 고집하게 되고, 새로운 발상을 만들어낼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규칙으로 정한 것이다. 좋고 나쁨에 대한 비판은 물론이고 ‘이것을 해서 실패한 적이 있다’라는 의견이나 ‘이 아이디어라면 전에도 나왔다’라는 식으로 말하면 안 된다.

자유 분방(Free-Wheeling)

첫번째 규칙의 판단 보류는 이것저것 비판하는 것을 멈춘다는 것이다. 그러면 누구나 자유롭게 생각나는 대로 말할 수 있다. 바보같은 말 또한 가능하다. 진행자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참가자로 하여금 ‘이런 것을 말하면 웃음거리가 되고 만다’라고 하는 자기 규제를 벗어나게 하고, 보다 많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도록 한다.

질보다 양(Quantity yield quality) 어떤 것이라도 좋으니 아이디어를 많이 낸다
-아이디어맨이 왕

어떤 아이디어라도 비판, 평가를 하지 않고, 아이디어만을 대량으로 내놓는 것이 중요하다. ‘초보 사냥꾼이라도 자꾸 쏴다 보면 명중한다’라는 기분으로, ‘점점 양이 많아지면 양질의 아이디어도 나온다’라는 사고가 기본이다.

결합 개선(Combination and Improvement)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에서 힌트를 얻는다

내 아이디어를 다른 누군가가 개선시키고 더 연구하여 보다 재미있는 아이디어로 발전시켜가는 것을 의미한다. 제시한 아이디어의 질을 높여가는 것은 브레인스토밍이 본래 집단 기법이라는 것을 잘 나타내준다.

(2) 브레인스토밍 과정

기본규칙 지키기 → 명료한 주제 확인(참가자들이 주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직접 말한다) → 자유로운 의견개진 → 평가와 조율 → 합의 가능한 대안마련 순서로 진행한다.

(3) 브레인스토밍 운영

브레인스토밍을 할 때 진행자와 기록자가 필요하다. 진행자는 위의 원칙을 잘 지키고, 참가자들이 고르게 발언하며 회의 주제에 집중하도록 격려하는 역할을 한다. 기록자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발언한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은, 한 얘기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하기도 하고 나중에 참석하는 사람이 그간 논의를 볼 수 있기도 한다. 기록자는 발언자의 발언의 핵심 단어나 내용을 기록하도록 한다. 물론 이러한 방식으로 하더라도 발언이 한 두 사람에게 독점되는 경우 혹은 그 영향이 큰 경우는 말하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각자 적는- 브레인라이팅 방식이 유용하기도 하다.

논쟁이 익숙한 그룹이나 사람들에게 브레인스토밍은 다소 맥이 빠지고 긴장감이 없다고 생각해 지루해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 사람들도 다양한 의견을 듣고 경험하면서 배우는 기쁨을 알기 시작하면, 이 방식을 적극적으로 이용한다. 자유로운 의견개진이 이루어지려면 대화와 논쟁이 구분되어야 한다.

대화와 논쟁²⁾

대화	논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화의 목적은 나와 남의 이해를 높이는 것이다. 2. 대화에서 듣기는 나의 이해를 위한 것이고, 나의 성장을 위해 남의 이야기 속의 좋은 점을 들으려 한다. 3. 나는 내 자신의 경험이나 이해를 바탕으로 이야기 하려 한다. 4. 나는 이해를 높이기 위해 질문을 한다. 5. 남의 말이 끝날 때까지 들어준다. 6. 나는 남의 말과 감정에 주의를 기울인다. 7. 다른 사람의 경험을 현실적이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8. 나와 남의 감정을 이해하려 한다. 9. 침묵을 존중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논쟁의 목적은 남에게 나의 입장을 성공적으로 주장하는 것이다. 2. 논쟁에서 듣기는 내가 들은 것을 반박하기 위한 것이고, 남의 주장의 단점을 들으려는 경향이 있다. 3. 나는 다른 사람의 주장이나 동기에 기초한 가정을 바탕으로 이야기하기 쉽다. 4. 나는 반박을 하거나 혼동을 위해 질문을 한다. 5. 나는 종종 말을 끊거나 주제를 돌린다. 6. 나는 내가 펼칠 다음 주장에 초점을 맞춘다. 7. 다른 사람의 경험을 왜곡되었거나 비현실적이라고 비난하기 쉽다. 8. 남의 입지를 좁히기 위해 나의 감정을 표출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용하려 한다. 9. 침묵을 남의 패배로 이해한다.

2) Lisa Schirch & David Campt, The Little Book of Dialogue for Difficult Subjects, Good Books 2007

8

한국교회 안에서의 여성:

21세기 모성신화와 기독교 ‘가정’ 담론

백소영 | 이화여자대학교 인문과학원 HK연구교수

1. 문화적 위치와 전제

전통사회에서의 ‘이상적’인 어머니상

20세기 현대사회에서의 ‘이상적’ 어머니

20세기 후반 이후 점차 ‘전문화’되는 모성

👉 모성은 ‘본능’이 아니라 ‘사회적 구성’(?)

2. 21세기 대한민국 교회 여성

삼중겹의 문화적 전제가 혼종적으로 작동하는 자리

근현대(soft) 가부장제의 모성 담론

기독교 가부장제의 모성 담론

한국적(유교적) 가부장제의 모성 담론

3. ‘모성의 역사’

신석기맘 : 재생산능력에 따른 최초의 성별분업으로서의 ‘육아’

전통맘 : 가부장제 유지를 위한 신화화(기독교모성/ 유교모성)

20세기맘 : 자본주의제 유지를 위한 고안

21세기맘 : 모성의 무한 경쟁과 전문화(알파맘, 베타맘…)

4. 신석기 ‘모성’의 기원

거다 러너 <가부장제의 창조>

“인간아기는 털이 없는 상태로 태어나며 그 때문에 보온의 필요성을 더 크게 경험한다. 그들은 원숭이처럼 움직이는 발가락이 없어 꾸준히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어미를 붙잡고 있을 수 없다. 그래서…여성들은 어머니로서의 의무와 쉽게 결합시킬 수 있는 경제적 활동을 선택하거나 선호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애 업고 사냥하기의 장애)

5. 기독교 모성

여성을 ‘육체성’으로 제한하는 담론 형성

“하와가 너 자신이라는 것을 모르느냐? 하나님의 이미지인 남성을 망가뜨린 너, 살아라! 그리고 비난받아라”(터툴리안)

유일하게 신성화된 영역- 모성 (마리아론)

“오직 어머니됨 말고 여자가 무엇에 더 쓸모있는지 모르겠다.”(어거스틴)

6. 전통적인 신앙 담론 속 성과 결혼

“아이를 갖고자 하는 의지가 사랑보다 커야한다. 사랑 때문에 결혼하는 일은 사악한 일이다.”

“당신은 부부간의 행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생식을 위한 행위이지요. 관능적인 목적만을 가진 다른 행위들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7. 전근대유럽사회에서의 모성 실제

금욕주의적 전통에서 ‘육아’는 점차 저급한 활동으로 간주(특히 귀족층 기독교여성-모유 수유는 ‘육적 행동’ 가급적 젖유모를 고용)

cf. 생산계층의 모성/ 빈곤계층의 모성

* 18세기말 파리 출생 2만 천 명의 유아 중 오직 천 명만이 엄마 젖을 먹었다!

8. 근대의 기획과 모성

계몽사상가들의 사회적 비전(자유, 평등, 독립, 자아실현 등)에서 배제된 여성들

예) 루소의 <에밀>: “모든 여성교육은 남자와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 남자를 기쁘게 하고 남자에게 유용하며 남자에게 사랑받고 좋은 평가를 받으며 남자가 어렸을 때는 양육하고, 장성해서는 세심하게 돌보며 남자에게 좋은 조언을 하고 남자를 위로하며 남자의 생활을 즐겁고 감미로운 것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야말로 시대에 변함없는 여자의 의무이며…”

9. 남성중심적 시각의 여성 담론

“따지기를 좋아하는 여자들이 아니라 신앙심이 깊은 여자로 교육하시오. 여자들은 지능이 떨어지고 생각이 변덕스럽기 때문에 종교적 구속이 필연적인 것임은 자명한 일시오.” (나폴레옹)

“소녀들은 겸허한 미덕으로 이끌어가야하는데, 이같은 미덕이야말로 여자아이들을 순종하게 하고 아내들을 헌신적으로 만들며 어머니들을 기독교인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가톨릭 사제)

“프랑스 처녀들을 학문의 폭력에서 구해내야 한다.” (르 골르와 신문 사설)

“여자는 글을 써서는 안된다. 여자들이여, 제발 책을 만들지 말고 아이를 만들어라!” (오귀스트 드 케라트리)

10. 청교도 모성과 현대자본주의

산업화와 생산력의 증대-경제적 활동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사교적 충동에 동기부여되지 않고 게으름 없이 아이들의 육아에 전념할 모성의 필요성!

결혼을 신성한 축복으로, 배우자 사이의 영적 파트너십을 인정하는 청교도적 결혼관의 등장!

기독교적 모성 이해 + 현대적 요구

(모성 AS 신실한 기독여성의 ‘소명’ calling)

11. 청교도 목회자들의 설교

“여자를 필요악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신성모독자이다. 왜냐하면 여자는 필요선이기 때문이다.”

“성령께서는 아내가 방해물이 아니라 돕는 배필이라고 말씀하셨다.”

“좋은 아내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선물이기에...”

“결혼처럼 신선한 샘이 또 어디 있으랴?”

12. 20세기말 한국 교회의 설교

여성은 아내로서 책임이 있습니다. 여성은 성경말씀을 비유로 들자면 교회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순종과 예배가 있는 곳이지요. 따라서 아내들도 교회로서 순결과 아름다움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교회로서 예배가 양육의 사역이 요청되는 것처럼 집안에서 자녀들을 돌보고 위해서 중보하는 사역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을 ‘상응하는 돕는 자’로서 남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존경하며, 남편에게 맞추어 나간다면, 그런 아내는 ‘완전한 남자’를 만드는 ‘완전한 여자’가 될 것입니다.

13. 21세기 교회 ‘가정사역자’의 권고

“기혼여성이나 어머니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이 남편과 자녀들의 삶을 나아지게 하고 가족들을 위해 가정을 관리하는 데에 영적, 육체적, 정신적 노력의 최우선 순위를 두는 것이다. … 그렇다 당신은 직장을 가질 수도 있지만, 진정한 당신의 일은, 진정한 당신의 삶은, 당신의 진정한 우선순위는 가정에 있다. … 당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고 싶다면…” (엘리자베스 조지)

14. 한국여신도의 또 하나의 억압적 내면화, 유교적 모성

삼종지도

-철저히 그림자로서의 인생 (아버지-남편- 아들)

칠거지악

-실패한 모성에 대한 제도적 배제

여성교훈서들의 핵심내용

-현모양처의 삶! 희생, 사랑, 봉사, 헌신, 겸손, 자기낮춤… (기독교적 덕목과의 시너지)

15. 21세기 글로벌 경쟁사회

신자유주의적 경쟁 구조

-고용유연성의 실질적 의미

-자유경쟁의 실제적 결과(10-80-10) (구조조정되는 남편, ‘나인맨’ 아이)

-시장에서의 ‘전업주부’의 금전적 가치는? (제로이거나 최저임금이거나)

16. 연애, 결혼, 가정-삼포 시대

확대가족 - 핵가족 - 탈성적 전문가 개인

(삶의 조건에 유리한 상황으로 변화)

더 이상 가정을 갖는다는 것이 삶의 ‘유리한’ 조건이 아닌 세상

낭만적 사랑(romantic love)에서

합류적 사랑(confluent love)으로!

17. 여성이 21세기 대한민국을 사는 방법은?

살기 위한 여성의 선택:

‘전문엄마’이거나 ‘탈성적전문가개인’(골드미스, 모성을 완전히 대체시킨 기혼여성)이거나…

* 이들이 경험하는 ‘소외’의 형태는?

* 이에 대한 기독교 신앙적 평가는?

18. 가정 As “교회”-사정영역의 공공화

최소단위의 교회인 가정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두세 사람(마태복음 18: 20)

교회의 본질- “서로가 함께”

서로를 건설하는(oikodomein) 사람들(데살로니카전서 5장 11절)

* 탈성적전문가개인도, 보조자로서의 역할을 본능이나 소명으로 여기는 개인도 ‘교회’의 구성원일 수 없다.

19. 모성의 공공화/제도화

‘돌봄의 능력’

본능인 근거 “하나님의 형상”, 생명을 가진 피조물의 공통능력! 회복하고 연습하고 개발해야 하는 ‘잊혀진’ 본능

(전세계가 ‘서바이벌게임’이 되어버린 사회에서는 더 더욱 요청되는 능력)

제도로서의 ‘모성’실천과 이를 위한 공공모성 담론의 대중화

(기업환경의 모성친화적 개선, 청년층의 사회참여의 통로…)

교회개혁실천연대와
사회선교센터 길목이 함께 손잡고



세상과 교회를 밝히는 여성 세움 프로젝트
기독교여성 지도력 개발과정을 시작합니다

www.protest2002.org | www.gilmok.org

◀을지로입구역

을지로3가역▶

향린교

명동성당